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 기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애굽의 후예인 인종들은 죄와 사망 그늘에 싸여 절망하며 멸망의 운명을 맞이할 때 사랑하시는 아버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 받으실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와 화평의 왕이시며 구원의 왕이시니, 모든 그를 우리의 메시야이며 구주로 믿는 모든 크리스마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오늘날 다툼의 동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홀연히 하신 천군 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며 가로되 자라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 평화요 하나님과 (누가복음 2장 11, 13-1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14호 2012년 12월 15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성탄 칼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메리 크리스마스!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메시아의 선지자 이사야는 고통하는 인류역사 속에 광명한 새벽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통하여 장차 이뤄질 평화의 왕국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사9:1-7). 그 때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추수군의 즐거움과 승리자들이 탈취물을 나누며, 종의 멍에를 메고 채찍에 맞던 무리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압제자의 채찍을 꺾고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는 자유와 영광의 날이 올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에는 '여호와와 구원이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이름처럼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다섯가지로 요약하여 메시아로 오신 인류의 구세주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그 이름은 첫째, 기묘자(wonderful)라, 그의 탄생이 기묘합니다. 그의 사역이 기묘합니다. 그의 죽음이 기묘합니다. 그의 권능이 기묘합니다.

둘째, 모사(counselor), 보혜사, 변호사, 상담자, 인도자, 위로자. 죄악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한 지혜와 계획을 겸비한 법정대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원더풀 카운슬러인 것입니다.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All Mighty God).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니, 십자가에 죽었으나 삼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심판주로 오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영존하시는 아버지(Eternal Father/KJ, Everlasting Father/NIV)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조건 없는 불변하는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박대 천대하며 영접치 않았으나 그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요13:1b). 그 사랑은 죄 값으로 죽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죄 값을 치러주시며 대속의 만

다섯째,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인류역사 이래 지구촌에 진정한 평화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어느 현명한 제왕도 고통하는 인류 역사에 진정한 평화와 양평, 행복을 준 때는 없었습니다. 약육강식, 권력과 무력과 재력을 통한 압제자들 때문에 고통하는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세계 평화의 비전을 예언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예언 7백여 년 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다 함이라"(마1:21-23)라고 말하고 누가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눅 2:14-20)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고통하는 인류역사 속에 나타난 평화의 왕이십니다. 암흑에 헤매는 어두운 인류세계의 참 생명의 빛이십니다. 미움과 갈등으로 얼룩진 역사세계의 영원한 사랑의 구주이십니다. 죽음의 공포에 전율하는 인생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십니다(요1:1-4, 14). 그리고 평화의 왕이십니다(요14:26-27).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요16:21-2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부디 인류의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기묘자가 되시며,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임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분을 우리의 마음 속 깊이 모시는 성탄절이 되게 합시다. 그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2012년 성탄을 맞으면서 테니스의 성탄 칸타타를 소개합니다

올려 보내라 힘차게 크리스마스의 찬양을!

- 테니스의 성탄 칸타타

올려 보내라 힘차게
구주 나신 기쁜 환성을
죄에 묻혀 잠든 인류의 밤하늘에
평화 평화 평화를
저주받은 인류의 탄식을 올려 보내고
새 생명에 희열 찬 감격을 올려 드리라

눈물, 한숨, 시기, 분노를 가계 하라
그리고 참된 삶의 희열을 올려 드리라
궁핍과 탄식, 죄와 허물을 올려 보내라
시대대의 싸늘한 불신앙도 함께....
저희의 구슬픈 곡조를 올려 보내고
보다 큰 신앙의 의를 올려 드리라

지연과 혈통, 파당과 갈등의
거짓된 자만을 올려 보내라
못 성도에 대한 비방과 원망도 함께
그리고 만백성이 나아와서
주께 영광 영광 돌려보내자

땅에 사는 인생에게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영광을....
진리와 전도애의 사랑을 올려 드리고
선에 대한 만민의 사랑을 올려 드리라

더러운 부패의 남은 형식을 올려 보내고
황금에 대한 추한 탐욕을 올려 보내라
예로부터 천 번의 전쟁을 올려 보내고
만년의 평화를 올려 보내라

올려 보내라 지상의 암흑, 인류의 비애
혁명과 파괴, 싸움과 분열, 한숨과 눈물, 죽음의 고통을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장차 올 메시아
만왕의 왕, 만군의 주,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올려 드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2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천성덕 목사(벡쿠버빌라델피아교회 원로)



3면

"비우시고 낮아지신 하나님"
성탄신앙 삶으로 나누어 한다!



4면

동성결혼 논란 재 점화



7면

한국교회와 WEF, WEA, 로잔운동 (3)
노봉린 박사(Th.D. 하와이신학대 교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들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발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3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학 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1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3년 1월 25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3년 1월 26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3년 1월 28일(월) - 30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 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성탄서

성탄



권태진 목사
(군포제일교회)

행복한 성탄이 된 것은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 때문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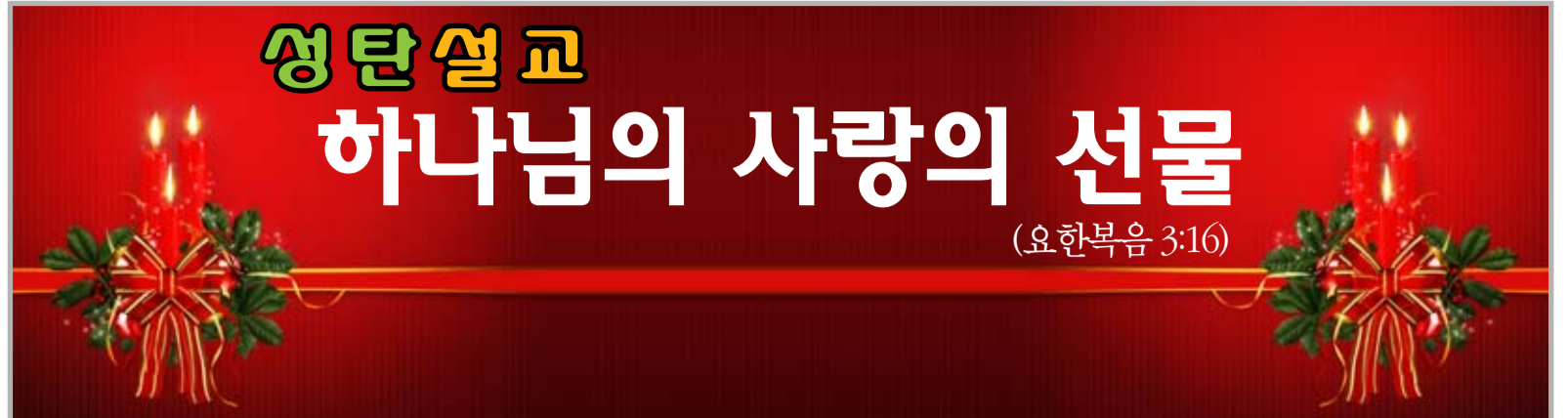
말구유도 귀하게 보임은
그리스도 그곳에 누이심이라

천군 천사의 합창
동방박사와 목자 찾아옴은
별과 천사의 계시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빛 사랑
형제 입고 오신 예수
헤롯의 어둔 가슴 소동하고
칼 끝에 묻어나는 아이들의 피
순교자의 피 되나

인간의 생각 계획 아는
전능자 인도하니
어둠이 사망하고
빛이 살아나누나

행복한 성탄
인류의 구원의 꽃
온누리에 활짝 피어나겠구나.



성탄설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구절로서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요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짧은 구절이지만 분명하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밝혀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5:8 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요일4:9)고 하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쁨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즉 모든 시대, 모든 족속,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



천성덕 목사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원로)

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3:10).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2:1).

영원한 죽음의 형벌 아래 있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평생에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자기 백성을 구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태한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1) 하였습니다.

또한 첫 번 성탄절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온 백성” 즉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시대의 사람들, 이 땅 어디에 살던지 그 누구에게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분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주 예수님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으며, 신약 성경

은 증거하기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요1:3, 골1:16)이시며, “참 빛이시며”(요1:9),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빌2:6)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요10:14), “나는 부활이요 생명”(요11:25)이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14:6)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셨기에 성탄절은 가장 복된 절기이며 기쁨의 절기입니다.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을 얻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과 같이 땅 끝까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어 열방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복음의 등불을 밝게 비추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p>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p>		<p>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p>
<p>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p>	
<p>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p>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플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 병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비우시고 낮아지신 하나님” 성탄신앙 삶으로 나눠야 한다!

2012년 성탄절... 예수탄생의 신학적 의미 전인적 실천

올해도 어김없이 12월25일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다. 성탄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로 멸망 받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처절한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하시므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실현하신 참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름다운 뜻을 지닌 성탄절은 거룩해야 하며, 내 자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한다.



예수의 탄생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물음은 사실상 성탄절이 다가오면 늘 되풀이해서 제기하는 물음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물음은 늘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물음이다. 물론 형식적인 겉보기 크리스천들에게서 이 물음은 성탄절이 갖는 자본주의 사회의 오락적 흥미를 깨는 귀찮고 번거로운 질문이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탄생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라는 물음은 우선 “예수 탄생의 신학적 의미”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 우리의 실천적 행동은 신앙적 혹은 신학적 확실 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엔 우리의 실천이라는 것이 무분별한 행동주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성탄신앙의 본질적 핵심은 하나님의 비우심 혹은 낮추심에 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신비를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빌2:5-8)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수치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낮추심, 고난과 수치는 하나님의 본질과는 무관한, 단 한번 인간을 향

해 행동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사건이요, 그분의 영원한 신적인 본성과 영광의 표현이요 그 계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자신을 낮추시는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시므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히 남(타자)과 함께 하고 참여하는 사랑, 영원히 남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연대성, 다시 말해서 영원히 남을 유익케 하는 희생에 있다. 이 신비를 우리는 ‘삼일일체’라고 부른다. 이 신비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 안에 있는 신비이다. 이 신비가 역사 속에서 몸, 형체, 모양을 취한 것을 우리는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부른다. 요한은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육신’속으로 오셨다고 선언한다(요1:14). 이 육신 안에 오신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드러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바로 그분의 낮추심 가운데서만 충만히, 즉 온전히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도피적이거나 영혼만의 반복 사랑이 아니라, 이세상적이고 책임적이고 온전한 사랑이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것에 신실하고 책임지고 구원하고 완성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자기지향적이고 자기완성적이고 자기위안적인 것이 아니라, 타자지향적이고 타자완성적이고 타자구원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이다. 이것이야말로

로 우리가 예수의 탄생사건으로부터 받은 영광과 은혜와 진리이다.

그렇다면 예수의 탄생이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갖는가? 이러한 성탄의 신비가 현실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어떤 실천적 행동을 촉구하고 유발하는가?

1.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모든 것, 모든 영역이 바로 우리의 소명의 자리요 사명의 목표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을, 거룩한 영역과 속된 영역을, 평일과 주일을 나누지 말자! 하나님이 어디 거룩한 영역, 교회, 주일에만 오셨는가? 모든 것이 신앙적인 일이고 신학적 일이며 그래서 정치적인 일이다. 매일이 안식일이고, 속된 것 속에 거룩한 것이 있다. 기도가 행동이고, 행동이 기도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의 영광을 위하느냐 하나님의 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와 정의의 위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2.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증거하며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일의 우선순위를 논하지 말자. 가장 신앙적인 것은 가장 실천적이며, 가장 실천적인 것은 가장 신앙적인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예수는 한 번 오셨고, 또 지금도 오고 계시지 모른다. 또 장차 오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한 마디도 이것일지 모른다.



시론

올해도 크리스마스는 너무 일찍 오고 있지는 않은가?

성탄절과 함께 기억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각 개인의 마음에 담겨진 과거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생겨났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대부분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은 들을 때마다 성탄절 준비로 복잡한 우리들의 마음에 성탄의 참 의미를 조용히 새겨 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곤 합니다. 이미 크리스마스 행사와 선물준비, 카드 보내기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 있을 여러분과 과거 저의 주변에서 시작된 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은 대화의 공간을 통해 실제적인 성탄의 의미를 되찾아 보고자 합니다.



양춘길 목사
(뉴저지 필립교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제가 시카고 한 교회의 학생부 지도교사로 있으면서 학생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약 35명의 학생들이 모여 예배와 저녁식사,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자 의례히 하는 선물교환 순서가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가져온 모든 선물들을 앞에 쌓아놓고 “제일 좋은 것이 내게 걸려야 할 텐데” 생각하며 모두의 시선이 선물에 집중되어 있을 때, 11학년 되는 한 남학생이 갑자기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가 한 가운데 섰습니다. 그 학생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물을 하나씩 가져갈 텐데 어떤 것을 가져가든 5불짜리 하나씩 가져오기로 했었으니 우리에게 대단한 것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가난하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값진 선물이 될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을 다 가지고 가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그 후의 이야기는 더 자세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선물을 갖게 될까?”하고 마음 조리던 학생들이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고, 옆에 앉아 있던 저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녁 학생들의 파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나는 지도자로서 “이 녀석들이 오늘 아무 사고 없이 제 시간 내에 끝내 줘야 할 텐데” 하는 걱정으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어떻게 맞으며 어떻게 보낼까? 먼저 성탄절이 누구에게나 다 기쁘고 아름다운 절기는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거리의 흥겨운 음악과 쌓아 놓은 가게의 상품들, 찬란한 행사와 화려한 의상들, 반짝이는 장식과 풍성한 식탁들이 우리의 시선을 전부 차지하고 있기에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어느 누구에게나 즐거운 절기라는 착각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지나쳐 가는 외로운 얼굴들, 고독한 마음들을 바라볼 때 크리스마스가 되었기에 더욱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기에 사랑하는 어린 딸에게 인형 하나 사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가슴은 더욱 아프고, 한번 배불리 먹어보지 못한 배는 더욱 쓰러리며, 나그네의 삶은 더욱 고독해지며, 차가운 철창 뒤에 숨소리는 더욱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니 어찌 저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아름다우며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매년 찾아오는 이 절기가 저 주스럽기조차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년 전, 성탄절 파티에서 용기를 내어 선물들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했던 그 학생은 나에게 성탄을 어떻게 맞으며 보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노래소리보다 울음소리가 더 커지며, 파스함보다 차가움이, 흥겨움보다 고독함이, 풍성한 웃음보다 쓰러린 신음이 더욱 깊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맞아 저들을 찾아 함께 있어주고 고통을 나누면서 보내야 한다는 귀한 교훈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시선을 돌리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있어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시는 예수그리스도, 이 예수의 탄생의 의미는 오늘도 없는 자-인형이 없고, 노래가 없고, 웃음이 없고, 친구가 없고, 사랑이 없는 자들의 없음을 조금이라도 있음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들이 없는 자들의 선물이 되어 만나고 함께 있어 줄 때에, 오늘날에도 저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며, 우리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와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가장 가까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밀린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 선물준비, 파티 준비에 바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낮아지지 못하고, 진정한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의 현장에 “올해도 크리스마스는 너무 일찍 오고 있지 않은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3분학기 본교강의안내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Feb 11-15(2월 11 -15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Roger Peugh

Feb 18-22 (2월 18-22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A Session(Jan 7-Mar 1: 1월 7일-3월 1일)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DI852 World Religion(세계종교)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Bangkok, Thailand

- Jan 7-11 (1월 7- 11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Jan 14-18 (1월 14- 18일)
DI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Los Angeles, CA

- March 11-15(3월 11 - 15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Manila, Philippine

- April 15-19(4월 15 - 19일)
PM 804 Philosophy of Ministry(목회철학)

Korea

- April 22-26(4월 22 - 26일)
DI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모집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선교학 박사과정(D.Miss.)
- 48 Hour Program
- 60 Hour Program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기대해 봅니다

한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인가정 상담소가 30대부터 80대 한인 12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변에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62.8%였습니다. 또한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신건강이 문

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80.2%였다고 합니다. 지난 9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발간하는 '헬스데이터 2012'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은 인구 10만명 당 33.5명이 자살해 34개 회원국 중 1위에 올라왔습

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 12.8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몇 해 동안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인한 여파도 있겠지만 정신건강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생애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상상치 못했던 한인 관련 대형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도 그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몇 해 전 일이던가요, 한인 타운에 의사부부가 자살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한국에서 인테리로 살던 의사 부부가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에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의사였기에 미국에서도 의사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들을 하버드에 입학시켜 공부하게 했습니다. 아들

은 부모의 바람을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버드 학교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의뢰인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백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백인 친구는 "백인 변호사도 많아서 넘치는데, 어느 백인이 아시아인 너에게 일을 맡기겠나 한국인이 많은 LA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라"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를 졸라서 LA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부모도 아들과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6개월이 지나도록 의뢰인은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백인 친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은 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인 친구는 "너는 결혼은 한국인

이지만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데 어느 한국인이 너에게 일을 맡기겠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변호사는 미국에서 최고가 되려고 그 어려운 공부를 15년이나 했는데 진작 자기가 해야 할 공부를 못했다면서 '인생의 실패자'라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아들의 자살소식을 들은 의사 부부도 충격을 받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은 상처와 안타까움을 주는 날 때 마다 우리는 안타까워 할 뿐 달리 해결책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조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국민소득이 2만불 대에 이르고 있고 제조업, 스포츠, 서비스, 문화 사업에 이르기까지 놀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삶은 고통과 절망가운데 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모든 것이 부

족할 때보다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선이 끝나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이제 조국에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공약을 앞세우며 피를 토하듯 자신의 정책을 주장하며 투표자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해는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본국이나 해외동포 모두들에게 앞날에 대한 소망,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즐거움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따뜻한 민족지도자가 아쉬울 때입니다. 도래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모두가 행복해 하는 밝은 조국이 되어서 이곳 이민자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신나는 시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동성결혼 논란 재 점화

미 언론, 오바마 집권2기 문화전쟁 본격화 보도

연방대법원이 가주의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날 가주 동성결혼 금지법과 함께 연방법인 결혼보호법(DOMA)의 위헌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 심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주는 지난 2008년 주민발의안 8이 주민투표에서 통과함에 따라 동성 간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후 동성커플을 포함한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소송이 잇따랐고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월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월 31일 '동성결혼 부부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연방법 '혼인보호법'은 위헌'이라고 본 연방항소법원 판결도 재심하게 된다. 대법원의 위헌심리 결정은 메인, 매릴랜드, 워싱턴 등 3개 주 주민들이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자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킨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내년 3월부터 심의를 시작 6월까지의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8, 결혼수호법(DOMA) 위헌 심리

이번 대법원의 심리 결정은 결혼에 대한 법적 정의를 연방과 주 정부 차원에서 심리하겠다는 의도로, 동성애를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게 된다. 현재 대법원에는 10건의 동성애 문제에 관한 소송이 계류되고, 이번에 심리를 결정할 소송은 전통적인 결혼의 정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먼저 대법원은 동성애 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의 주법을 검토하고(Hollingsworth v. Perry)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정의한 연방정부 법률(Windsor v. United States)도 살펴볼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08년 실시한 투표 결과 52%의 찬성으로 동성애 결혼을 금지시킨 제안 8(Proposition 8)을 제정했다. 대법원은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 문제를 검토하면서 개별 주가 동성애 결혼을 허용할 때 연방정부의 법은 이를 인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또 연방정부 차원의 법으로 모

든 주가 의무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 2월 제9 연방순회법원은 주민발의안 8이 "차별적"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연방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평등권 보호'에 위반된다는 사법적 견해를 밝혔다. 동성결혼에 대한 이와 같은 사법적 해석이 내려지자, 모든 미국 주 정부는 한마디로 문화 전쟁 즉 전통적 결혼을 고수하자는 진영과 동성애자들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정론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집권과 맞물려 동성애 결혼 지지로 급속화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이미 개인적으로 동성애 커플이 결혼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동성애 결혼을 지지했다. 또한 지난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각 주의 주민투표에서 메인 주와 매릴랜드 주, 워싱턴 주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투표를 통해 동성애 결혼을 승인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96년에 에디스 슐

레인 원저란 여성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이를 기각하는 근거가 됐던 결혼보호법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미 매사추세츠 주와 뉴욕 주의 항소법원은 결혼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혼보호법은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결혼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동성결혼 부부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보호법' 위헌 소송을 제기한 원저는 지난 2007년 캐나다에서 동성인 테아 스파이어와 결혼한 뒤 뉴욕으로 이사했다. 이후 스파이어는 2009년 질병으로 사망했고 그녀의 모든 재산은 원저가 물려받았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상 이들의 결혼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저는 연방 상속세로 약 36만3천 달러를 내야 했다. 원저는 자

(BLAG)'이 항소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헌법에 어긋난 결혼보호법을 법적으로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자 이 단체는 연방정부 대신 미전역에서 결혼보호법을 지켜내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클리블랜드 소재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에서 헌법학을 가르치는 조너선 엔틴 교수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 법이 유사한 상황의 시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동등하게 보호하지 않았는지 여부"라며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보스턴 소재 제1항소법원은 현행 혼인보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다만 대법원만이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에는 미 법무부가 위헌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혼인보호법 관련 항소심 4건에 대한 심리가 계류 중이다.

미국 사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가장 논란이 돼왔던 동성애 문제가 이제 연방대법원의 법 해석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이 이번엔 내려야 하는 결정은 미국 역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판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미 언론의 공통된 견해이다. 크리스천 복음주의 진영에서 보수 성향을 대표하는 월드(World)지는 비판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Marriage in the courtroom: The high court agrees to consider fundamental questions on the state and federal marriage laws). 9명으로 구성된 대법관들은 확연하게 보수와 진보로 4명씩 구별이 된다. 따라서 스윙 보트로 떠오르는 앤토니 케네디(A. Kennedy) 대법관의 결정에 따라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가 수호되나? 아니면 동성애가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로 정의되는가? 로 결정되게 된다. 케네디 대법관은 진보주의적 판사로 이미 게이들의 권리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월드지는 1973년 낙태를 여성의 기본 권리로 인정한 판례(Roe v. Wade)의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법 해석을 하기 전, 대다수의 주에서는 낙태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갑자기 끼어들어 한번에 낙태가 여성들의 기본 권리라고 판결하게 됐다.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동안 38개 주에서는 주 헌법수정이나 행정명령으로 전통적인 결혼을 수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또 다시 연방대법원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대다수 미국인들의 의지와 가치를 한 번에 묵살시킬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다. 결국 교회공동체와 크리스천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미전역에 닥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켜낼 수 있도록 중보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www.nypc.net

담임목사 청빙

뉴욕장로교회에서 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하며
이민 1세와 2세를 위한 신앙교육과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신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 1)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교단에 가입되어 있는분이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2)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하고,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 목회경력 5년 이상인 분
- 3) 한국어, 영어 설교가 가능한 분

▶ **제출서류**

- 1) 한글, 영문 이력서(사진포함)
- 2) 신앙고백서와 목회 계획서
- 3) 학위증명서와 안수증명서
- 4) 최근 두 편의 설교 (최소 한편은 동영상)
- 5) 최종 사역교회의 후보 1개월 분과 교회 홈페이지 주소
- 6) 추천서 2인 이상(추천인이 사인하시고 밀봉된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처 및 기한**

제 출 처 :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P.O.Box 4069
Sunnyside, NY 11104

문 의 : cbnypc2012@yahoo.com
제출기한 : 2013년 1월 31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교회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해왔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결실이 있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뒤돌아볼 시간입니다. 물론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고 또한 나름대로 결실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었어야 했느냐는 것이지요. 상업하시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은 사역에 업적이 두드러지는 것같이 보이나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헛수고가 된다는 의미를 부연하고 싶습니다. 즉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매달려 지칠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해왔다는 것이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다음세대 문제입니다.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속해 있는 교육부가 교회의 변두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정책과 예산과 시설과 프로그램이 장년 위주로 세워지고 집행된다면 정말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형교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형교회는 저절로 주변에서 흡수되는 교인들과 부모를 따라 오는 아이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아이들이고 수백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언제까지 교회에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미

교육칼럼

다음세대(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11)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전략-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러나 교회교육에 대해서는 부모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교회만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세상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보다는 교회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겠지요. 더 심각한 것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신앙심이 생길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 자식도 아닌데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들이 먹고 살만했을 때는 늙어 죽어 가고 그들의 다음세대는 부모세대가 일구어 온 터전 위에 부를 누리며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우리세대에서 다시 재현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부모님들이여! 돈 벌고 잘 먹고 사는 데만 열중해서는 안됩니다. 목회자들이여! 교회 지도자들이여! 교세 키우는 일에만 열중하지 마십시오. 교회 크게 짓는 데만 열중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십시오. 다음세대들이 우리

도록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십시오. 더불어 교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전문가의 지도하에 학습지도 안 작성과 학습자료 제작과 학습지도 능력을 배양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 자신들이기 때문에 교육기술이 없이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학습효과는 물론 학습동기부여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이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느끼고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까지 이끌어 가야 하는데 교육기술이 없는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세대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와는 문화적 상황이 너무 상이한데 문화는 마치 옷과 같아서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벗어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나버리고 싶은 충동을 받지 않도록 그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교육환경을 구성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아이들의 정서에 맞게 세워야 합니다.

또한 각 연령대에 맞게 목표치를 설정하여 프로그램 기획부터 준비과정과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활동과 발표한 뒤 결과를 분석하는 데까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사가 세운 계획에 의해 무조건 따라야만 한다면 아이들의 창의력 신장을 막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학습활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차세대 맞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예배체험 필수 기획부터 준비과정, 결과분석까지 자녀 참여시켜

안하지만 자기 차가 생기거나 또는 대학을 갈 때가 되면 7-80%가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적은 수이지만 대학부에 출석하던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반 이상이 떠납니다. 결국 그들은 방황하다가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천 명씩이나 모이던 교육부가 성인이 된 후 EM에 남아 있는 수가 10년 20년이 지나도 1, 2백 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으니 걱정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세대가 세운 교회를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항상 변두리로 또는 주변 인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목회자나 부모들이 계시겠지만 과연 우리 부모세대가 자녀들을 위해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학원비 들여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가르쳤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

대해 마음을 쓰고 투자하고 연구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들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전문성이 없는 교육과 불편한 교육환경 등 관심 밖인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얼마나 염려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부모 여러분!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잃어버린 다음세대에 대하여 책망 받을 일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사기 2장 7절-10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와 그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백 십 세에 죽으매 무리가 그의 기원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산 북쪽 남 헤티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이민 1세대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며 먹고 살기 위해 일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세대가 헌신하여 세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승해 가도록 전략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인물을 키우십시오.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십시오. 과감하게 투자하고 자리를 물려 주십시오.

2세 사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니 그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물론 그들은 1세 목회자의 헌신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키는 일만 하는 일군에 불과하고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이용만 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1세대는 갑니다. 그리고 다음세대가 옵니다. 그렇다면 주역의 자리를 다음세대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항상 주변인물로만 남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마다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면 교육부에 각부마다 교육전문가를 기용해서 교육의 본질과 내용을 전문화 하십시오. 커리큘럼(Curriculum)과 교육방법(Teaching Method) 개발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고 아이들이 예배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른들처럼 좁은 공간에 귀만 빌려 설교를 듣게 하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까지 키워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다음세대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면서 본 칼럼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특별히 장영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이번 호로써 저의 교육칼럼은 마칩니다. 다음세대의 교회정착과 신앙계승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과 계속해서 유대를 가지고 함께 연구하며 발전시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다음세대를 세워 우리 부모세대가 세워 온 교회와 선교를 이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연락처: (714)699-0210 차세대연구소 (끝)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세미나

주제: **들오라 이스라엘!** "Hear, O Israel"
생명의 말씀을 Word of Life to
자녀들에게! (신 6:4-9) **Our Next Generation!**

일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 (9박 10일)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l-91033, Jerusalem, Israel
Phone: 972-2-6599999 Fax: 972-2-6511824

- **참석대상**
1) 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9박 10일(세미나 등록, 성지순례, 호텔 숙박비 포함): **1400불**
* 항공표는 별도 개인 구입
* 4월 9일 예루살렘(Tel Aviv Ben Gurion Airport: TLV) 도착으로 현지 공항에서 영접하여 호텔까지 픽업해 드립니다.
 - **항공권 문의:** 세계여행사(World Travel Bureau, Inc.)
1-800-777-9136 담당자: 리디아 정
NY: (212)917-0022, CA: (562)403-2277
 -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 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 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재)에듀넷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 * 미자립교회 목회자님을 위한 '성지순례 등록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탐파한인장로교회 반주자, 지휘자 청빙

본 교회는 서부 플로리다 지역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한인교회로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성가대를 이끌 지휘자 및 피아노를 전공한 반주자를 구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건: 전공자로서 세례 받은 분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추천서 1통
- 연 락 처: 예배위원장 원춘수 장로 (Tel. 813-960-4949)
당회서기 이후근장로(Tel. 813-789-2674)
E-mail: leesauto2004@gmail.com

탐파한인장로교회 (담임 김용일 목사)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Tampa(PCUSA)
6011 Yosemite Dr. Tampa, FL 33634
Tel. 813-881-0068, 882-0246 / www.kapctampa.org

청빙 (Sunday School)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 EM 사역자

팜비치 한인장로교회(담임: 한석원 목사)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할 디렉터를 청빙합니다.

주일학교 사역 대상: 유아부터 고등부까지

1. 자격: 신학 대학교 졸업 또는 재학자, 영어 필수(1.5세/ 2세 선호)
2. 제출 서류: 이력서, 간증문, 사역 계획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가능)
3. 접수 마감: 2012년 12월31일
4. 연 락 처: 담임 목사 한석원 목사: 404-435-3252
sukwonhan@hotmail.com
교육 사역원장 채한림 장로: 561-809-0937
hollychae@gmail.com

• 인터뷰를 통해 하프 타임, 풀타임 조정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팜비치 한인 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Palm Beach
301 S. Olive Ave.
West Palm Beach, FL 33401
(www.pbkc.org / 561-651-1198)

부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교회(KPCA) 버지니아 장로교회에서 동역하실 전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주요사역: 영어예배, 청년부, 사무행정
- 지원자격: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로 영어와 한국어 사역이 가능한 분
- 제출서류: 이력서 및 개인소개서 (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최근 설교동영상 혹은 CD 2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개별 인터뷰 (서류심사 통과자만 개별 통지 합니다.)
- 제출기한: 2013년 1월 31일
- 제출처: 버지니아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담당: 서기 백원길 장로, 703-585-6355) Eld. Won Kil Paik 6355 Edsall Rd. Alexandria, VA 22312
- 제출방법: 우편이나 이메일 wonpaik@hotmail.com
- 교회주소: 6021 Franconia Rd. Alexandria, VA 22310
- 교회전화: 703-922-6064

버지니아장로교회
담임목사 민철기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툴리톨리(Tolitoli)



술라웨시의 남서쪽 반도에 위치한 29,500여 명의 툴리톨리는 토미니(Tomini)로 알려진 종족중의 하나이다. 그들의 이름은 지리적 언어학적인 이름이며 그들의 가까운 이웃은 고론탈로(Gorontalo)와 부울

(Buol)과 남쪽 토라자(Toradja)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토미니 언어는 상호간에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이름들은 주로 방언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각 그룹이 각기 다른 언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토미니 언어는 아마도 1500년대의 이슬람 출현까지 각자 고립돼 남아있던 거대한 상업 종사 제국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토미니의 문화적 역사는 4세대로 나뉘어 이슬람의

출현, 독일 식민지배시대, 일본 점령, 그리고 독립시대이다. 독일 선교사들이 토미니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들은 여전히 강한 이슬람으로 남아있다.

삶의 모습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300인종이 거주하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라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역사를 통해 발생한 많은 시민전쟁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오래전 토미니(툴리톨리가 종속돼 있는)는 세습된 족장과 그의 보좌하는 의회에 의해 대표가 되는 각 부족과 함께 술탄국에 의해 지배됐다.

195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정부 대항 운동으로 술라웨시의 섬 전반에 걸쳐 젊은 사람들에 의해 장악

됐다. 토미니 지역에서 이러한 폭동은 1960년대 페르메스타 폭동에서 정점을 이뤘다. 수년 후 그 지역이 시장성이 있는 물건들을 전혀 생산할 수가 없게 되자 정부는 경제적 향상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했으며 그 결과 정향나무는 성공적으로 농원에 소개됐고, 단단한 관목 또한 소개됐다.

오늘날 연안의 툴리톨리는 정향과 또한 코프라(야자열매 말린 것)와 야자 농장을 위해 적합한 지역이 됐다. 이 생산품들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은 벌목을 하고 어업하며 살아간다. 높은 지역에서의 툴리톨리들은 쌀과, 옥수수, 사고(야자의 한 종류) 그리고 연안부역을 위해 등나무(지팡이와 다른 고리버들세공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나무)를 모은다.

연안지역에 주로 위치한 툴리톨리 마을들은 작으며 죽마로 세워진 집을 짓고 산다. 결혼식은 무슬림 형식을 따르며 중매자에 의해 소개 받는다. 이러한 중매는 또한 여성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신랑의 가치가 협상된다. 사촌들 간의 결혼이 선호되며 일부다처가 허용되지만 드물게 행해진다. 일반적으로 결혼 후 첫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부모들과 함께 산다.

신앙

아라비아와 인도로부터 오는 무슬림 상인들은 인도네시아에 이슬람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오늘날 인구의 85%가 무슬림이다. 툴리톨리는 주로 수니파 무슬림이다. 그러나 다른 아랍국보다 이슬람적 행위가 덜 엄격하다.

술라웨시의 고립된 지역에서 툴리톨리는 조상과 이슬람과 기독교가 섞인 지역 종교를 따른다. 산악 지역에서는 여전히 정령숭배를 행하고 있다. 그들은 자연과 물질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정령숭배자들은 수쿠 테라싱(suku terasing) 혹은 외국의 부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재배치를 포함해서 정부계획에 목적이 돼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비록 두 선교단체가 현재 인도네시아의 툴리톨리를 대상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독교적 자료는 적다. 기도와 부가적인 선교노력이 툴리톨리의 작은 교회를 단단히 세우기 위해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감옥갈래? 교회갈래? '양심재판' 논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10대 청소년에게 오를라호마 주의 한 판사가 징역 유예의 조건으로 교회 출석을 강제하는 보호관찰령을 선고해 위한 시비가 불거졌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10일 보도했다.

오를라호마 지역지인 '텔사 월드'에 따르면 지난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타이러 알프레드(17) 군에 대해 머스코기 카운티 법원의 마이클 노먼 판사는 지난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다. 노먼 판사는 알프레드가 앞으로 10년동안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는 것을 징역형 면제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여기엔 10년간 음주발작 착용, 정기적인 마약 및 음주 검사, 음주운전 예방 행사 참석 및 간증도 포함됐다고 NBC 방송은 전했다. 음주 사고 당시 알프레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정 기준치를 밑돌았지만 그는 판사의 제의를 모두 수용하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는 등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노먼 판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최근 오를라호마 사법소원위원회에 위헌심판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ACLU 오를라호마 지회의 라이언 키셀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국가기관은 교회 출석을 강요하고 개인의 신앙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며 "어떻게 일개 판사가 헌법을 뒤흔들듯 무시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먼 판사는 '오를라호만'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판결이 헌법을 침해했다는 항의 전화를 몇통 받긴 했지만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당사자인 알프레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의 변호사는 "우리는 정말로 보호관찰을 원한다"며 노먼 판사의 판결에 시비 걸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연맹 측은 "교회와 감옥 둘 중에 택일하라는 판사의 결정은 젊은이의 양심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없이는 이행될 수 없다"며 판사 징계 권고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호주 총리, 지구종말 창조로 케이팝 언급

호주의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지구 종말론'을 풍자하는 영상에서 종말의 징조로 케이팝(K-Pop)을 언급했다. 길라드 총리는 6일 유튜브에 게재된 1분짜리 영상에 등장,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국민 발표 형식으로 "국민 여러분, 지구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식인 좀비와 악령이 쓰인 짐승들이 출몰하고 케이팝이 세상을 지배하는 등 '결정적인 충격'(final blow)'이 닥쳐도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팝이 인기를 얻으면 종말이 가까워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길라드 총리는 세계가 멸망하면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서 "(때주 현안을 논의하는 토크쇼에서) 적어도 내가 질의응답을 더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농담을 던졌다. 그리고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이 풍자 영상은 오는 7일 트리플 채널에서 방송되는 '세계 종말'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 길라드 총리가 직접 녹화한 것으로, 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세계 종말' 프로그램은 호주의 유명 과학자인 칼 크루스웰니키가 7일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제작됐다. 앞서 크루스웰니키는 마야력(曆)과 그레고리력(曆)을 수학과 희곡이 섞인 복합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결과 12월7일이 '지구 종말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마야력을 근거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12월21일 종말론'보다 2주가량 빠르다는 것이다. 마야인들이 남긴 달력은 1주기당 394.26년씩 13주기(5천125년)만 기록된 탓에 모든 주기가 끝나는 12월21일 종말이 온다는 주장의 근거가 돼 왔다.

길라드 총리가 인터넷상에서 유명세를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가 지난달 의회에서 야권의 성차별주의와 여성혐오주의를 맹렬히 비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조회수 200만 건을 기록하며 이미 화제가 됐다.

미의회, '고구려는 중국...' 보고서 발간 연기



미국 의회가 최근 중국과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지정학적 관계를 조명하는 보고서를 낼 계획이었으나 우리 측 요구로 발간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달 초에 발간하기로 했던

동북아 보고서를 최근 우리 정부가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수정 작업에 나섰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급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중국의 역할 등을 전망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 측 역사 인식을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첫 부분에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 등을 담은 중국 측 자료가 그대로 인용될 것으로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역사학계가 우려를 표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사단법인 국학원은 지난달 "미국 의회 보고서에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며 중국의 역사라는 왜곡 사실이 일방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미국 대사관 등에 전달하고 수정을 촉구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전문가를 미국에 파견, CRS측에 우리의 주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RS는 일단 발간을 연기하고 우리 측 주장대로 동북아 역사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입장을 우선 기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회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중국의 주장이 그대로 실릴 경우 이를 공인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한 소식통은 "보고서의 의도는 중국을 옹호한다기보다는 중국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점을 소개하는 쪽에 가깝지만 자칫 이런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CRS에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이른바 '동북공정'을 둘러싼 한·중 양국간 역사쟁쟁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튀니지서 반이슬람주의 고조



'재스민 혁명'의 발원지인 북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독재정권 타도 후 정권을 이끌어온 이슬람주의

자들에게 사회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튀니지 노동계가 집권 엔나흐다당에 대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연정 파트너인 몬세프 마르주키 대통령의 공화의회당(CPR)은 연정 탈퇴를 위협하고 나섰다.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한 온건 이슬람 성향의 엔나흐다당은 CPR 등의 세속주의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했다. 이 같은 권력구조상 마르주키 대통령은 엔나흐다당 소속의 하마디 제발리 총리에 이어 2인자에 해당한다. 모함메드 잠부 CPR 사무총장은 9일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과 마르주키 대통령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연정을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운동가 출신의 마르주키 대통령은 지난달 이슬람주의자들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각 개편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튀니지 노동계가 예고한 총파업이 나올 것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노동계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사단 비로우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은 11일 대표단을 이끌고 직접 수도 튀니스를 방문해 총파업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ITUC 대변인이 밝혔다.

튀니지 최대노동인 튀니지노동연맹이 주도하는 이번 총파업은 13일 열리며, 이날은 민주화 시위 발발 2주년 하루 전이다. 이 같은 전국 단위의 총파업은 지난 1940년 연맹이 처음 결성된 이래 세 번째일 만큼 매우 드문 경우다.

이번 파업은 앞서 노동연맹이 엔나흐다당 지지 세력으로 알려진 과격 이슬람주의자들로부터 공격받은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이슬람 강경주의자 단체인 '혁명보호연맹' 구성원 수백 명이 노동연맹 사무실을 습격, 조합원들과 충돌해 10여명이 다쳤다.

노동연맹은 이 단체의 해체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튀니지에서는 지난해 민주화 시위로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 정권이 무너졌으나, 이슬람주의자들이 이끄는 과도 정부와 세속주의자들의 충돌이 끊이지 않아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제난에 따른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또다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처음 선포된 이래 벌써 9번째 연장 조치다.

2012

믿는사람들과 함께 하는

"톨리톨리 콘서트 두번째 이야기"

-루돌프 사슴코를 찾아서-

12월 18일(화)

7:30PM

60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LA 한인타운 마당물 1층

출연
랜디킴 빅밴드
조셉윤
엘리스신&클라라킴
김성아 전도사
강현선&박수진
우성영
피아니스트 강혜정
최운영

*특별게스트 스키드로밴드

공연 관람은 무료.
카페베네에서 향긋한 커피와 맛있는 와플 등을 사신뒤 연인과, 가족, 친구끼리 좋은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믿는사람들
www.peoplesingod.org
peoplesingod@gmail.com

특별 베네핏 공연으로 NGO단체 월드쉐어가 진행하는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성탄 선물 보내기 모금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기/고

한국교회와 WCC WEA, 로잔운동 (3)



노봉린 박사(Th.D. 하와이신학대 교수)

3) 제7차 WCC 총회, 칸베라 호주

1991년 2월7일-20일 호주 수도 칸베라(Canberra)에서 제7차 WCC 총회가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필자는 그때 당시 WEA Theological Commission의 총무로 사역했기 때문에 몹시 버로 참석하였다.

개막식에 한국의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인 정현경 박사가 한복을 입고 호주인인 2세 16명과 본토인 2명과 같이 춤을 추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인도의 간디, 미국의 킹 목사(Martin Luther King)까지 많은 죽은 영들을 부르기 시작하였고 죽은 영들 이름이 적혀 있는 종이를 불살라 버리면서 "성령이여, 오소서" 외치며 무속적 정령신앙(Shamanism) 쇼를 관중에게 보여주며 대한영을 받았다.

그때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북한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했는데 WCC가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왜 하필 정 교수를 선택했는지 의문을 갖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주최로 모여 정교수의 비 서서적인 신학을 비판하는 집회를 갖게 되었다.

제7차 WCC 총회기간 중 복음주의교회 지도자들 약 50여명이 매일 저녁집회 후 함께 모여 그날에 각자가 여러 소그룹에 참석하여 얻은 보고를 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WEA Theological Commission에서 오래 사역했던 Dr.

Bruce Nicholls와 필자는 이 총회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Beyond Canberra" 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Beyond Canberra. Oxford: Regnum, 1993).

3. WCC의 성장시대 (1950-90)

1948년에 정식으로 창설된 WCC는 특별히 IMC와 Faith and Order 운동을 통하여 성장기를 이루게 되었다.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수없이 분열되었

고 특별히 미국 복음주의 교회내의 교파적 분쟁은 많은 교역자들과 평신도에게 신앙의 혼돈을 가져오게 되었다.

1950년대 미국의 극단 보수주의 지도자였던 Dr. Carl McIntyre는 ACCC(American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와 ICC(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를 조직하여 미국교회뿐만 아니라 1960년에 한국의 장로교, 성결교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필자는 콘코디아신학교 신학박사 논문을 1960년에 일어났던 장로교(합동, 통합 파) 분리에 대해 썼는데 놀랄 정도의 충격을 받았

으며(Division and Reun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969) 이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교회연합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WCC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교회연합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WCC 운동을 확장시킨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분열과 보수교단 내의 분쟁은 한국교회의 수많은 평신도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회(한교연)의 분열, 또한 한국의 최대

루었고 그 결과로 전 세계의 348개 교단이 멤버로 참가하게 되었다. 이 교단들에 속한 교인 수는 5억이 된다(WORLD, March 11, 2006, p. 36). 현재도 많은 보수주의교회들이 WCC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WCC 성장의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럽의 독일교회, 영국교회, 미국교회의 막대한 재정원조로 제네바에 국제본부와 두고 특별히 출판사역에 집중하여 무진장의 에큐메니칼 재료를 출판하여 전 세계교회에 보급하게 된 점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유럽교회와 미국교회는 자유주의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왕성한 시대였으므로 복음주의 신학교들과 교회들은 에큐메니칼 교단의 신학교와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소규모의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을 필자는 신학생으로 직접 관찰하게 되었다. 1960-1980년대를 "WCC 시대"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했던 WCC 운동이 종교다원주의, 혼합보편주의, 해방신학, 자유주의신학과 변질된 선교신학의 영향으로 많은 부정적

들은 교인 감소와 이에 따르는 재정난으로 인하여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제3세계 교회들은 서구교회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경제적으로 대단히 미약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복음적 신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들이라도 보수신앙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WCC에 속한 교단들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1) 교인감소의 타격

미국 타인 잡지는 1965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의 주류교단의 교인감소 비율을 보고하였다:

United Church of Christ: 20%, 연합장로교회: 25%, 성공회: 28%, 연합감리교회: 18%, Disciples of Christ: 43%. 미국 NCC에 속한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수는 4,059명(1965년)에서 1,246명(1987년)으로 감소하였다(Times, 1989년5월22일, pp. 94-96). 이러한 교인감소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영국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1980-2009) 약 9,000개 교회가 문

2) 재정난과 교회 축소

WCC의 재정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6년부터 WCC의 수입이 예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1990년 WCC는 약 300명의 직원을 갖고 있었으며 19개의 위원회가 있었고 예산은 2천6백만 달러였는데 연말에 8%의 적자를 보게 되었다(REC News Exchange, Sept. 1991, p.5). 1995년 326개 회원교단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5개 회원만이 분담금을 납부하여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다.

WCC의 대다수의 수입은 순서적으로 독일복음주의교회(EKD), 네덜란드개혁교회, 미국장로교회, 캐나다연합교회, 미국연합감리교회, 캐나다성결교회였다. 제일 작은 회원교단의 분담금은 년 100달러였다. 그러므로 WCC의 코나드 라이저 총무는 WCC의 재무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WCC재정난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위축이다. 둘째, 회원교단들의 계속 교인감소로 인하여 지원 단체들 스스로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원금을 동결하거나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에 있는 NCC본부도 재정난에 처하면서 2001년 PCUSA로부터 긴급 5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고 UMC로부터 7% 이자 40만 달러를 빌려 재정난을 간신히 넘겼다. 그리하여 미국 NCC는 보수교단인 남침례교(SBC)와 NAE(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와 천주교에 호소하면서 같이 일하기를 청하였다(WORLD, Dec. 9, 2000, p. 22). NCC의 직원도 17명을 줄여 4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WCC와 NCC의 재정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에큐메니칼 운동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예고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WCC 호주총회 때 정현경 교수 무속적 정령신앙 쇼 벌여 1960-1980 성장세 WCC, 회원교단 교인감소 . 재정난 위기

교단이며 보수주의 교단으로 널리 알려진 예장(합동)내의 총회장 불신에 대한 분쟁은 기독교인에게는 물론 비 기독교인에게도 실망을 던져 주는 부끄러운 일인 것이다.

필자가 사는 하와이에 한인교회가 80개에 있는데 이 조그만 섬 하와이내에도 하와이한인교회협의회가 3개로 갈라져 평신도들의 실망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높여지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많은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같이 교회에 가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개신교 교단 분리의 실망 속에서 WCC는 1950년부터 교회연합운동에 성황을 이

인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오늘날의 WCC는 필자가 1970년 ATA를 위해 일했을 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필자는 20년간(1970-90) ATA 총무로 아시아에서, 그 후 WEA-TC 국제총무로 6년간(1990-96) 재직하면서 나날이 성장하는 WCC의 상황신학,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신학과 대결하여 싸웠으며 복음주의 신학과 신학교육을 아시아와 전 세계의 신학교에 강화시키기를 힘껏 노력했다.

4. 현 WCC 운동의 문제: 교인감소와 재정난

특별히 서구 WCC에 속한 교단

을 닫게 되었다. 교인 감소로 교회 재정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교회를 판매하는 것이다. 매년 220개 영국교회가 폐쇄되고 있다. 2009년 출석교인은 5% 정도이다. 독일의 국교인 루터교단은 매년 150,000교인이 교회멤버십을 포기하고 종교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수백 년 전에 웅장하게 지은 교회건물들은 소수의 기독교인만이 주일예배에 참석하므로 박물관 역할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서구문화의 물질만능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성문란주의, 무신론주의가 한때는 기독교문화로 성장했던 서구문화를 휩쓰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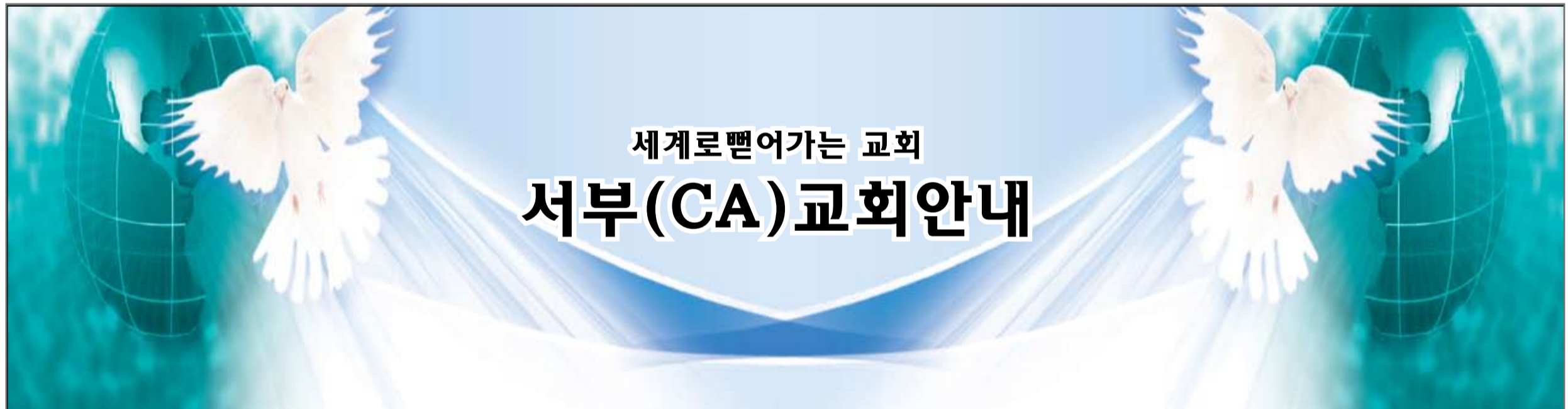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with their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서부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리디아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등문교회, 동양선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드림교회, 삼성장로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 평안교회, 베델한인교회,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복음장로교회, 브리지교회, 세계비전 교회, 세계소망교회, 안디옥장로교회, 엘반인침례교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요셉선교회, 일서크리스천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창대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18. 맨 처음 기후

언젠가 공원에 갔을 때 잘 보이던 한 종류의 오리 떼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 추위를 피해서, 먹이를 찾아서 따뜻한 남쪽나라로 이주를 한 것이다. 새들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월동하기 위해 이동하는 곤충도 있는데 모나크(monarch)란 나비들은 캐나다 동북부에서 멕시코까지 무려 3000마일을 떼를 지어 날아가기도 한다. 물론 새들도 추위나 더위를 피해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생물체들이 번성하며 살기 위해서는 온도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사막이나 몽고의 고비사막, 미국 서부의 모하비 사막 같은 곳은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도 커녕 식물들도 살기 어려운 각박한 지역이다. 이런 사막이 육지 표면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육지의 10%는 빙하로 덮여있고 그 나머지 지역도 사실상 살기 좋다고 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 여름과 겨울의 더위와 추위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생물들이 안간 힘을 쏟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셨어도 정말 좋았다고 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보아도 좋지 않은 환경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어떻게 그 좋았던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 곳이 되고 말았을까?

최초의 기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처음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상태로 살았어도 참으로 좋았던 세상이었다(창2:25). 만약 그 당시 기후가 지금 같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처음으로 옷을 입었다. 춥거나 더워서 입을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덜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 것이다(창3:21).

맨 처음 추위와 더위에 대한 언

급은 노아홍수 후에 나타난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8:22). 그런데 이와 매우 유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과정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노아홍수-빙하 사이 습윤사막시대에는 한대/열대 구분 없어 화산 있는 곳만 있었던 빙하이후 큰 온도차로 인간수명단축



처음이 가장 좋았다!
창조주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심히 좋았던 처음이 사실이어야 한다.

추위와 더위라는 언급이 없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창1:14). 낮과 밤(주야), 여름과 겨울(계절)은 두 곳에 다 언급되어 있지만 홍수전에는 추위와 더위가 없었음에 틀림없다. 또, 노아홍수 기간에 묻힌 석탄의 양을 근거로 보면 당시 나무의 양이 지금보다 100배나 많았다. 기후가 아주 따뜻하고 충분한 물이 있었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고도 어려움 전혀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러므로 노아홍수 이전의 환경은 추위와 더위가 없는 완벽한 기후였을 것이 틀림없다.

노아홍수 이후부터 빙하시대까지

노아홍수 직후 기후는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홍수 직후의 기후는 지금에 비해 비교도할 수 없이 좋았다. 그 증거로 습윤사막과 수명을 들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사막이 없었다.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이 현재는 사막이지만 거기에는 공룡이나 대형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발견된다(예: National Geographic, 2008년 9월). 대형동물들이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과 식물들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하라 지역도 과거에는 사막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은 사막이지만 과거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을 습윤사막(wet desert)라 부른다.

그런데 사하라사막만 한 때 조원이었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막에서 동물들과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발견된다. 지구 전체에 사막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다. 창조과학자들은 이런 시대를 습윤사막시대라고 부르는데 바로 노아홍

수를 찾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바닷물은 무척 따뜻해야 하고 공기는 추워야 한다. 이런 조건은 노아홍수와 화산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빙하는 북극이나 남극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산이 있는 곳에만 존재하였었다.

빙하시대를 지나면서 추운 곳은 더 추워지게 되었고 더운 곳은 더욱 더워지게 되어 한대 동식물과 열대 동식물의 구분이 생겨나게 되었다. 같은 장소라 해도 여름과 겨울에 큰 온도차를 보이게 되었다. 이런 급격한 기온차이는 노화를 촉진하는 스트레스로 작용하는데 결국 수명단축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벨렉 이후부터 점차 줄어들던 수명이 약 700년이 지난 모세 시대에는 70-80년으로, 그리고 4000여년이 지난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60년 살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빙하시대 직후보다 기후가 점점 나빠져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창조자만 구원자

창조 사실을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막연하기만 하다. 시작이 막연하므로 마지막도 막연하여 천국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음을 쉽게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막연하지 않다. 인류의 범죄역사를 통하여 인류는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모두 다 알았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고, 노아홍수 심판사건으로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바벨탑사건의 결과 언어장벽이 생겨 민족과 나라와 인종이 생겨 사람들간의 관계가 찢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의 기후도 아담은 상상할 수도 없이 악화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자녀)이 죄인이 되어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능력이 없다. 이 사실이 창조자이신 예수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우리가 그 좋았던 환경은 잃어도 그 좋았던 사실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세상 죄를 지시려고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쁘고 환영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저는 성격이 직선적이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게 대답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보니 비판력이 강합니다. 저의 말이나 표현력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그런지 친구들도 많지 않습니다. 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는지도?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나성에서 유 집사

A: 설명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실제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으로 한쪽 눈을 잃은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세 명의 화가를 불러 왕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첫 번째 화가는 양쪽 눈이 모두 건강한 모습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보기는 좋았지만 진실이 아니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두 번째 화가는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한쪽 눈은 건강하고 한쪽 눈은 애꾸로 그렸습니다. 사실이기는 하지만 기분이 나빠 그도 역시 쫓아내버렸습니다. 세 번째 화가는 건강한 눈이 있는 옆쪽 모습을 그렸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는 왕의 모습을 매우 진취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초상화는 보기에도 좋고 또 사실에도 어긋나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왕은 세 번째 화가에게 상을 주며 칭찬했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표현을 은혜롭게 잘하는 기술입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화가처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로 미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

따뜻한 카리스마 지혜와 사랑 병행

나 진실이 아닌 것을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째 화가처럼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부닥치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화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왕의 마음도 알고 사실과도 충돌하지 않는 표현으로 일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좋은 점은 잘 나타내고 단점은 살짝 가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표현을 은혜롭게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IQ가 좋은 사람이 성공했으나 오늘날은 EQ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성적이고 남과 친화력이 있고 환경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는 율이 더 높습니다.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1. 남의 단점을 절대로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말고 늘 남에 대해 말할 때는 신중하십시오. 가능하면 남의 장점만을 보며 칭찬하며 격려하는 습관을 하도록 하십시오.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잘 안 모인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만 가지고 주장하면 남을 쉽게 험담하거나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비판력이 강한 사람은 남이 볼 때 교만하게 보이기에 사람들이 잘 안모입니다.
2. 남에게 친절하고 포용력이 있고 친절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는 감성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오늘날의 리더십은 "따뜻한 카리스마"를 필요로 합니다.
3. 내가 먼저 말을 많이 하고 내 주장을 펴는 것보다 남의 말을 들어주고 남의 자존심을 세워주도록 노력하십시오. 대개 성공자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면 그들은 신이 나서 자신들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목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주일 6: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목사관: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운 주일1부예배: 오전 9:00(한국어) 주일2부예배: 오전 10:1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국어)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영): 오후 1:45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원대학: 오후 1:30 EYM예배: 오전 10:00 EYM찬양예배: 오전 10:00, (한어) 오전 11:00 주일새벽기도회: 오후 7: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살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98(백스칼로)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토요일예배: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410)203-9049, 사번: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ras.com	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타워: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a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06)456-0191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에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s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5-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문)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www.hawaiichurch.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템피조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lkpcra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0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26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4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9-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9-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창현 주일영어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9-1004, Cell: (808)218-4592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환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8)277-2936, 557-1778, 542-2922 1351 S. Beretania St., Hon., HI 96814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동부교계 기사판



롱아일랜드 청소년 부흥회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최예식 목사)가 주최하는 롱아일랜드 청소년 부흥회가 내년 1월 뉴욕반석교회(담임 김대희 목사, 11 Powell's Lane, Old Westbury)에서 개최된다. 11일(금) 저녁 7시와 12일(토) 저녁 6시 2회에 걸쳐 열린다. 강사는 패트릭남 목사.
▲문의: (718)321-1010

뉴저지교협 청소년연합수련회

뉴저지교협(회장 박성천 목사) 청소년 분과위원회가 CSO(Church Support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소년연합 수련회'가 12월 26일(수)부터 27일(목)까지 뉴저지 레오니아 UMC(396 Broad Ave, Leonia)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6-12학년이며 강사는 Joe Kang(필그림교회). 회비는 30달러.
▲문의: (201)335-7357, 696-8044

담임목사 청빙

뉴욕장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하며 이민 1세와 2세를 위한 신앙교육과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하고,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 목회경력 5년 이상, 한국어 영어 설교가 가능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한영 이력서(사진포함), 신앙고백서, 목회계획서, 학위증명서, 안수증명서, 최근 설교 2편(최소 한편은 동영상), 최종 사역교회의 주보 1개월분, 교회 홈페이지 주소, 추천서 2인 이상(추천인이 사인하시고 밀봉된 것)이며 마감은 2013년 1월 31일.
▲문의: cbnypc2012@yahoo.com

불우 이웃돕기 자선음악회

낙원장로교회(담임 황영진 목사)가 주최하고 라이프라인미션(대표 유태웅 목사)가 기획하는 "유진웅(Jesse You)과 함께하는 불우 이웃돕기 자선음악회"가 오는 22일(토) 저녁 7시30분 낙원장로교회(새천년교회)에서 열린다. 찬양인도 김봉규, 찬양사역자 강여진, 손사랑 수화 찬양팀, 피아노 이한나, 베이스 이진우, 기타 박지호, 드럼 이진하 등이 출연한다.
▲문의: (646)258-4161, 884-2090, 943-1007

부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교회(KPCA) 버지니아장로교회(담임 민철기 목사)가 전임 사역자를 청빙한다. 주요사역은 영어예배, 청년부, 사무행정이며 지원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로서 이종언어 사역이 가능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및 개인소개서(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최근 설교동영상 혹은 CD 2개. 마감은 2013년 1월 31일. 이메일 wonpaik@hotmail.com
▲문의: (703)922-6064/교회, 585-6355/백원길 장로

UPCA 총회 및 목사고시 공고

UPCA(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 총회장 명운건 목사) 정기총회가 2013년 4월 9일(화) 오후 4시부터 11일(목) 정오까지 뉴저지 트립튼장로교회(담임 황의춘 목사)에서 열린다. 또 목사고시는 총회 하루 전인 8일(월) 오전 9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과목, 자격, 구비서류는 총회고시부로 연락하면 된다. 목사고시 마감은 2013년 3월 31일.
▲문의: (609)298-2462, 510-9800

주일학교 담당 및 EM 사역자 청빙

팜비치한인장로교회(담임 한석원 목사)가 유아부터 고등부까지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 및 EM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신학대학교 졸업 혹은 재학생으로 영어 필수(1.5세, 2세 선호). 이력서, 간증문, 사역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마감은 12월 31일.
▲문의: (404)435-3252, (561)809-0937

뉴욕교협 제1차 임실행위 2013년 일정발표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지난 10일 제 1차 임실행위를 열고 39회기 교협 2013년 일정을 발표했다.

회의는 김종훈 목사 사회로 최웅렬 목사의 개회기도 후 회원점명(장경혜 서기), 업무보고(현영갑 총무)가 있었다.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하리케인 샌디 피해자 돕기(현재 15,220달러, 남가주교협 1만 달러 모금)는 각 회원교회 담임목사가 추천하는 교인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임실행위 일정은 △3월 11일 은혜교회 △6월 10일 뉴욕순복음 연합교회 △9월 9일 뉴욕어린이양교회에서 열리게 된다.



뉴욕교협 첫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신년하례식은 1월 14일(월) 오후 7시 프라미스교회 베네티관 강사 방지일 목사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는 3월 30일(주) 새벽 6시 ▲청소년

년농구대회는 4월 13일(토) ▲체육대회는 5월 27일(월) ▲할렐루야대회는 6월 14-16일(금-주) ▲청소년대회 9월 5-7일(목-토, 미정) ▲

뉴욕교협 "지하철 사고 한 집사 가족 돕겠다"

지난 3일 맨해튼 49가 전철역에서 말다툼 중이던 흑인 남성이 떠밀어 플랫폼 아래로 떨어져 기차에 치여 숨진 한인 한기석 집사(뉴욕우리교회 출석)의 남은 가족들에 대해 뉴욕교계 및 한인사회가 후원을 약속했다.

지난 5일 뉴욕우리교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종훈 목사는 "한기석 집사 가족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다. 4백여 한인교회들이 그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그들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원태 목사는 "고인의 가족은 3년 이상 우리교회에 출석했으며 한기석 집사는 교회청소를 1년 이상 혼자서 해왔다. 최근에는 그는 실업상태였지만 이 장벽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지난주일 예배 후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설교에서 격려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조원태 목사는 고인의 가족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하며 남은 가족을 위한 커뮤니티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의 아내는 5년째 투병중이며, 딸은 대학을 다니고 있어 도움이 절실한 형편이다.

한편 뉴욕포스트지는 한 집사가 전동차에 치이기 직전의 충격적인 사진을 1면에 게재했으며, 사진을 찍지 말고 한 집사를 구했어야 했다 등 뉴욕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유원정 기자)

NJUCA후원회 장학금 5만불 전달...23명 수혜



NJUCA 중고등학교 장학금 전달 모습

지난 10일 뉴저지 중부에 위치한 뉴저지유나이티드크리스천아카데미(NJUCA, 교장 Robert Pupchik) 베네티관에서 열린 참전용사(Military Appreciation Assembly) 행사에서 후원회가 장학금 5만 달러를 전달했다.

교직원과 전교생 그리고 참전용사들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그들의 뜻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성조기와 각 군의 깃발 그리고 참전용사들이 입장한 후 학생들은 각 학년별로 참전용사들의 전적과 위용을 기리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해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감사

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올해로 7회를 맞이한 NJUCA 후원회의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로버트 펄치 교장의 호명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 23명이 단상위로 올라왔으며 정승화 후원회 사무총장이 로버트 펄치 교장과 제임스와스코비치 학교행정위원장에게 5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NJUCA 중고등학교후원회(Friends of NJUCA)는 금년까지 총 35만 달러를 미국인 재학생과 한국 및 중국 유학생들 중에서 성적 우수자,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해왔다. (기사제공: NJUCA)



"블레싱 뉴욕" 첫날 뉴욕장로교회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다.

뉴욕청년연합집회 "Blessing New York" "나는 누구인가" 주제, 강사 박수용 장로

지난 9월부터 기독교문화공연 비영리 단체 PlanPlay를 중심으로 뉴욕의 젊은 크리스천들이 준비해온 뉴욕 청년연합집회 "Blessing New York"이 7일부터 3일간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뉴욕교협 후원으로 열렸다.

이번 집회 강사 박수용 장로는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전했다. 특히 미주지역 청년들의 상담 1순위 결혼과 관련 잘못된 외모지상주의를 지적하면서 신앙 가운데서 만남을 강조했다. 또 결혼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결핍성 증상을 상세히 전하면서 이같은 결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치유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우리 사랑할까요", "박수용의 자기 경영", "비전 인생" 등의 저자인

방시대 탐사여행은 6월 24-27일 그리고 ▲총회는 10월 21일(월)에 열리게 된다. 이외에 △단기선교(니카라과 선교대회 7월)와 △원주민선교(8월 중) 일정을 발표했다. ▲2013년도 수입예산은 42만 달러로 통과됐다. 인원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하기로 결의했다. 위원장 이병홍 목사는 법규위원회를 현영갑, 장경혜, 안창의, 이광희 목사로 보고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MOU협약 체결을 결의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김승희 목사 인도로 기도 양민석 협동총무, 말씀 최예식 뉴욕목사회 회장, 통성기도, 광고 현영갑 총무, 축도 양승호 직전 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최예식 목사는 "남은 자의 신앙"(롬11:1-5)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남은 자는 언제나 질적 소수의 정예부대였다. 그리스도의 일에 충성하는 사명자이며 구심점이었다"며 "이들은 또 준비된 사람들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며 최후의 날에 살아남는 자들로 그들의 삶은 오늘날 현실의 생활 속에도 나타나고 있다. 뉴욕교협 임실행위들이 이 남은 자가 되어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행위는 송병기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모나리자 스킨케어

Christmas Special Price 12월 31일까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권 \$30, \$50, \$70, \$100등으로 준비했습니다.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40	\$35
여드름 케어	1회	\$50	\$40
팔슬림 케어(스페셜 기계도입)	1회	\$40	\$30
등 경락	1회	\$50	\$40
배 경락	1회	\$40	\$35
전신 경락	1회	\$200	\$150
Aqua Therapy	1회	\$250	\$200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캐나다	한국및 동남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100	\$110	\$190	\$190	\$190	\$19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영 어: _____

목 사 평신도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 달 주 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생명 담긴 언어 사용해야 교회 약동” 삼성장로교회 설립28주년기념 임직예배

삼성장로교회(담임 신원규 목사)는 교회설립 28주년 기념 공모장으로 추대 및 임직예배를 9일 오후 4시 라하브라힐스장로교회(담임 Geoff Pfaff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삼성장로교회 창립28주년 기념 및 임직식에서 순서말은 목회자와 임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신원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윤년기 장로 기도, 김성실 자매 특송과 이수잔 권사의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간증, 신원규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이날 신 목사는 '주님을 향한 순수한 간증'(눅 9:23)이라는 설교에서 '성도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정립이 있어야 한다. 크리스천의 영광이 주어지기까지 그 전초의 단계가 있다. 그것은 기도의 삶과 십자가의 삶이다. 십자가 삶 없이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십자가 삶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기초가 쌓인 자들에게 영광스런 면류관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삼성장로교회는 3대 비전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화목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한 협력자, 동역자들은 화목해야한다. 그들은 가정이 화목해야 하고 교회가 화목해야 한다. 둘째, 선교구제에 힘써야 한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 힘에 겹도록 1%만 오버하자.

셋째, 생명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자. 살아있는 존재이기에 생명이 담긴 언어 사용해야 한다. 생명이 담긴 십자가의 언어를 사용할 때 교회는 생명이 약동한다. 임직 받은 분들 생명이 담긴 언어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이날 임직 받은 자들

에 대한 서약, 안수기도로 이어졌으며, 변영의 목사(벨렐장로교회)와 추영욱 목사(안디옥장로교회)가 권면을, 담임목사가 공포, 벽돌성가대의 축송, 박성민 목사(APU 부총장), 지용덕 목사(미주영국교회), 심태섭 목사(센트럴신학교 학장), Geoff Pfaff 목사(라하브라힐스장로교회)가 축사, 임직 및 취임패 전달, 담사로 이어졌다.

또한 이날 본 교회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으며 이날 예배는 신원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임직자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공모장로: 김수성, 김이집, 배인수, 선계원, △장로임직: 김봉식, 전병일, 황도성 △명예장로취임: 국유일, △명예장로임직: 김기완, 이병중, 정진범, 이범수 △안수집사 임직: 송기성, 안은식, 이성욱, 임지노, 최정근, 허금주 △권사임직: 국승희, 김광숙, 김명숙, 김상준, 김영희, 김지완, 이옥자, 유병주, 임미숙, 정순덕, 진상화, 최인숙, 홍영선, 황경숙, 홍린다 △명예권사임직: 김순자, 김정혜, 문봉남, 김추자.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GMI 유스 오케스트라 크리스마스 콘서트

오렌지카운티 심포니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승재 씨가 지휘하는 GMI 유스 오케스트라가 12월 19일(수) 저녁 7시30분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한다.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무대로 50여명의 오케스트라와 발레팀이 함께 꾸미며 차이코프스키 대표작 '호두까기 인형'과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한다. 티켓은 무료.

▲문의: (714)318-2085, 이메일: gmiorchestra@gmail.com

나성영락교회 크리스마스 콘서트

나성영락교회(임시담임 박희민 목사)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16일(주) 오후5시30분에 개최한다.

▲문의: (323)227-1400

'빈방 있습니까' 연극 공연

얼바인침례교회(담임 한홍수 목사)는 '빈방 있습니까' 연극 공연을 15일(토) 저녁 7시30분에 개최한다.

▲문의: (949)857-9425



한인가정상담소 여성 아동센터를 위한 자선음악회 '바로크 크리스마스 밤'이란 주제로 First Congregational Church of LA에서 열렸다



KPLA찬양인도자세미나에서 정종원 목사가 강의하고있다

문제가정 안전한 피난처 제공 지속 LAKMA 한인상담소 여성아동센터 자선음악회

LAKMA(LA Korean Musicians Association 이사장 최승호)는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 여성아동센터를 위한 자선음악회를 9일 저녁 7시 제일회중교회(First Congregational Church of LA)에서 개최했다.

'바로크 크리스마스 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LAKMA 챔버 콰이어와 LAKPO 챔버 오케스트라(이상 지휘 윤임산 교수)가 헨델의 메시아를 불러 고풍스러움을 자랑하는 제일회중교회에 걸맞은 연주를 선보였다.

또한 메시아 합창 전에 열린 음악회에서는 파이프로간 연주자 황재본 씨가 LAKPO교향악단과 바하의 'In Dulci Jubilo, BWV729' 협연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클라라이, 엘토 원순일, 테너 김민규, 바리톤 류정상이 G.P 테레만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TWV 1. 612', 소프라노 클라라김, 이보은이 비발디의 '글로리아'를, 소프라노 김종숙, 보이엘토 신현우, 테너 오위영, 베이스 전요섭이 J.S 바하의 '크리스마스 오

라토리오 BWV.248'을 불러 바로크 음악의 진수를 선보였으며 이날 연주회를 가득 채운 청중들은 출연자들의 수준 높은 연주를 귀 기울여 감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최승호 LAKMA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자선음악회를 통해 가정폭력 문제 가정을 위해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한인가정상담소 사역을 돕고 희망을 주기 원한다. 아울러 한인가정상담소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길 바라며, 즐거운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니조 한인가정상담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자선음악회를 통해 본 기관의 여성아동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한인사회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제공하기를 소망한다. 앞으로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피해자들이 언어적, 문화적 장벽 없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진리선포, 기도 같은 찬양 목표하라! KPLA 찬양인도자 세미나 성황

KPLA(Korean Praise Leader Association 디렉터 김성아 전도사)가 주최한 예배인도자 세미나가 3일 저녁 가스펠하우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정종원 목사(꿈이있는자우/아이엠처치)가 강사로 나서 예배인도자의 자세에 대해 강의를 이끌어갔다. 정 목사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소년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예배인도자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다윗은 용감하게 맹수들과 골리앗에 맞섰듯이 오늘날 예배인도자역시 다윗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 예배인도자는 예배 인도할 때 진리를 선포하는 입장에서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된다. 예배인도자라 부를 받았다는 것은 진리를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닌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예배는 영적 전쟁이고 진리의 싸움"이라 강조했다.

정 목사는 "예배인도자는 예배인도 시 멘트를 가능한 짧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1

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인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 그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다. 예배인도자는 담임목회자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예배음악을 준비해야 하며 그럴 때 조화로운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배를 인도할 때 기도 같은 찬양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교회는 찬양하는 곳이 아닌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가 진실되고 신령해지면 찬양은 단지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닌 기도에도 가까워진다. 또한 찬양팀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예배가 좌우된다. 예배인도자들 비릇 찬양팀들이 기도생활에 충실하면 연주 실력은 좀 부족해도 성도들은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기도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격려사를 맡은 지명현 목사(소리열/갈보리은혜교회)는 "KPLA가 예배자들을 위한 모임이라 기대

글로리아찬양단 제3회 정기공연 성황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글로리아찬양단 제3회 정기공연이 성황리에 열렸다

글로리아찬양단(지휘 다니엘석) 제3회 정기공연이 8일 오후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이번 정기공연에서 KAMA 여성합창단과 Episcopal Chorale Society Members로 구성된 글로리아찬양단이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 하나가 돼 헨델의 '메시아'를 불렀는데,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나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 흥분했다.

또한 KAMA여성합창단(지휘 송종현)과 Episcopal Chorale Society Members(디렉터 찰스 체트럼 박

사), 그리고 Dream Youth Singers(디렉터 다니엘석)와 피아니스트 루퍼스최가 찬조 출연해 이날 공연을 한층 빛냈다.

한편 이날 공연 전 열린 1부 예배는 김원락 목사의 사회로 시작, 최훈일 목사(글로리아찬양단 단장)가 환영인사를 했으며 한기형 목사(미주성서화 상임회장)는 '몸으로 부르는 메시아'(빌1:21)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최순길 목사(Reformed University Seminary, Chairman Board)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KPLA 문의는 (213)880-3645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2012 연말 특별 기도성회

| 일시 : 2012년 12월 13일(목, 저녁) ~ 20일(목, 저녁)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대표(신학생 훈련단체) KWMA 운영이사/충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L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한국의 안양에 위치한 갈멜산금식기도원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한 기도원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자 세워졌습니다. 코리아타운 내 카타리나와 W 8th 코너에 위치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기도회와 매일 조성근 담임목사가 직접 성회를 인도하는 매일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교회중심과 말씀중심의 기도성회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회복의 감격,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몇 년의 신앙이 앞당겨지고 직분자들은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을 지니게 되며 사역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야기의 첫문장이 됩니다. 지금도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거룩한 국가 이룰 대통령을 세워주소서” 국가기도연합 대선위한 초교파 연합금식기도성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18대 대통령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 에스더기도 운동, Young2080, ANI선교회 등 국가기도연합(공동대표 안용운 목사·고직한 이예경 선교사·이용희 교수)은 4일 경기도 화성시 수원원동 산수양관에서 ‘거룩한 나라, 북한구원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룰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초교파 연합금식기도성회’를 개막했다.

성회 첫날 오후 1시, 등록을 마친 참석자들이 삼삼오오 수양관 강당에 모여들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은 기독 청년들이 상당수에 이르렀다. 말씀이 선포됐고 이 나라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통성기도가 이어졌다. 특히 이 땅의 낙태와

동성애, 이혼, 음란을 막아주며 거룩한 국가를 이룰 대통령을 세워 달라고 기도했다.

성회는 김명현 이천순복음교회 목사의 설교와 전혜근 목사가 인도하는 찬양 시간에 절정에 달했다. 1000여명 참석자들의 찬양과 기도는 밤이 깊어가는 데도 멈출 줄 몰랐다.

방은수(59·충남 보령 천북신교회) 목사는 “남북이 분단된 이 땅을 평화롭게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한다”고 했고 강예단(29) 선교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구원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달라고 기도했다”고 밝혔다.

7일까지 3박4일간 이어지는 성회에는 김승동 김현철 문창욱 안용운 이호 목사 박명수 조갑진 주선애 교수, 고직한 이예경 선교사,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탈북자인 이예란 박사와 가정사역가 도은미 박사 등의 강연이 계속되며 한국교회와 나라, 대선을 위해 기도한다. 참석자들은 성회 기간 총 7끼를 금식하면서 기도 높은 영성훈련을 받는다. 낙태와 동성애 관련 특강도 진행된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성결교단 지도자 “하나 되게 하소서”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지도자대회 100여 명 참석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나성) 등 한국의 3대 성결교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교회의 회복과 연합을 위해 기도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역삼동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에서 ‘한성연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다. 박현모 기성총회장 장 김두성 예성총회장, 이영식 나성총회장 등 성결교 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성결교단 통합에 대한 방법도 제안됐다.

베드로전서 1장 15~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국교회의 회복을’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나사렛대 이사장 류두현 목사는 성경적 신앙으로 돌

아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목사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과제는 교회의 힘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며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 방식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답습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고 한국교회의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성경적 신앙에서 나올 수 있으므로 한국교회는 이제부터라도 성경적 신앙을 통해 거룩함을 되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식 총회장도 환영사에서 “연합의 필요를 느끼고 많은 시도와 노력 끝에 2년 전 한성연이라는 이름의 열매를 거두게 됐다”며 “예성, 기성, 나성 등 세 교단이 ‘성결’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 한국교회에 향해 신선한 메시지를 전하고 공

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자”고 호소했다.

예배에 이어진 ‘한성연 주제발표’에서는 각 교단에서 한 명씩 나와 발표했다. 신민규 나사렛대 총장은 “교육자가 바라 본 한성연”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3대 교단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신 총장은 우선 내년 6월 나사렛교회 세계중앙총회에 기성과 예성의 대표를 ‘관찰자’ 자격으로 참석할 것과 실질적 교류를 위해 서울신대, 성결대, 나사렛대 신학부 교수들의 교환근무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3개 교단에 소속돼 있는 미국 내 교회들부터 통합을 시도하고 ‘한국예수기독교성결회’라는 통합 명칭을 주보나 공식문건 등에 표기하자고 권했다.

이날 지도자대회는 100여명의 합심기도로 마무리됐다. 지도자들은 나라와 민족, 대선을 위해 기도한 뒤 한국교회와 한성연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가정에 있는 PC, 휴대용 노트북 등에서 3년 전부터 스마트폰 보급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이 게임 중독의 온상이 되고 있다. 보급 대수 3000만대가 넘는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게임 중독의 패턴마저 바꾸고

이상이라는 사실에서도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스마트 폰 게임은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동형 외톨이’를 양산한 과거의 컴퓨터 게임보다 더 큰 해악을 미친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자녀 교육의 노하우로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코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지를 쓰게 하는 것으로 시간대별로 기록하다 보면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말했다.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의 생각은 약간 다르다. 권 소장은 중독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

청소년, 스마트폰 ‘게임중독’ 어떡하나

있는 것이다.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 등 2000만건 이상 다운로드된 콘텐츠가 있고, 현재 150개의 모바일 게임 콘텐츠가 출시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 ‘게임=스마트 폰’ 시대가 뿌리내렸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폰 게임 중독률이 일반 인터넷 중독의 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청소년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줘야 하는 여부.

연세대 신학대학원 상담과 권수영 교수는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족들이 옆에서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코칭을 제안했다. 게임을 절제할

제할 수 없는 나이의 자녀들에게는 아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게임에 중독되면 스스로 통제 불가능 상태가 된다. 지나치게 감각적이 될 뿐 더러 게임 이외의 세상에는 무관심해진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게임 이외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 치료가 앞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주요교단 정책 탐구 (7) 예성

“외형보다 내실” ... 해외·軍선교 역량 집중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총회는 다른 교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교단이지만 교육과 선교,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찬 사업을 진행하는 건강한 교단이다. 예성 총회는 올해 개국 50주년을 맞은 성결대학교의 모교단이기도 하다.

예성 총회에서 가장 활발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 중인 부서는 선교국이다. 선교국은 내년 1월 22일부터 나흘간 제19기 해외선교사 훈련 과정을 개최한다. 매년 선교국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예비선교사(해외선교사훈련원생)를 선발해 교육해 왔다. 나흘간의 국내 훈련을 마치고 2주간 해외 선교현장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선교국 관계자는 “국내의 선교사 및 선교학 교수, 선교전문가들로부터 실제적인 선교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며 “본 교단에서 파송받기를 희망하는 선교사들의 필수 교육 코스”라고 말했다.

선교국은 이번 총회 회기 내에 선교국 재정 확보를 위해 찬양의

정이다.

교육국은 또 1990년부터 목회자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예성 산하교회 목회자들을 재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타성에 젖기 쉬운 목회자들에게 도전과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국 관계자는 “매년 45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강의와 운영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명실상부한 목회자 평생교육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도국은 대규모 전도대회를 준비 중이다. 전도국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성결인 전도대회, 두 배 부름 전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에는 부교역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꾸준히 진행해 온 군선교도 박차를 가해 진중세례식과 군선교주일, 사랑의 온차 등의 프로그램을 이어 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다문화선교와 북한선교에도 집중해 각각의 선교대상에게 맞는 선교전략을 수립

연도	교회수	교인수
2007년	1184	199,932
2008년	1245	194,441
2009년	1281	202,008
2010년	1292	209,374
2011년	1305	192,543

(자료:예성 총회)

를 개최해 주요 임원을 선출하고, 주요 정책을 확정한다. 또 평생교육원과 선교사훈련원 등의 교육과정을 주요 사업으로 시행한다.

다른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의 등록교인 수도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예성 총회가 발표한 최근 5년간의 교세 현황을 보면 교회 수는 증가, 교인 수는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예성의 소속 교회 수는 2007년 1184곳에서 이듬해인 2009년 1245곳으로 늘어 처음으로 1200곳을 넘어섰다. 이후로도 교회 수는 완만한 증가

예성, 교회수 늘었지만 성도수는 소폭 감소세

밤 등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지방회와 해외지방회 간 결연을 통해 해외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 매년 12월 첫 번째 일요일을 선교주일로 선정해 선교사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국은 10개 교단, 380여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품 교재’ 발간 등 평신도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국은 4년 전 ‘성품은 성결의 복음’을 담은 그릇입니다라는 주제로 ‘S.O.S 성품교육과정’을 개발했고, 이후 3년간 영아에서부터 중·고등부까지 사용이 가능한 5단계 어린이 성품교재를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또 ‘십계명, 친밀한 삶’ ‘회복, 분이 되는 삶’ ‘성령의 열매, 말기 삶’ 등 주제별로 구분된 장년 성품교재도 발간했다. 교육국은 새 장년 성품교재인 ‘신상수훈, 구별된 삶’을 개발해 내년 전국 2300여 서점을 통해 보급할 예

하고 연구를 위한 세미나 등도 개최된다.

사회복지국은 예성사회복지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 전국성결사회봉사단을 조직해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사회복지 선교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투병 중인 목회자 가족과 신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을 위한 사랑의 저금통 모금운동, 작은 교회와 근로신학생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모금운동 등 각종 모금운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청년회의 사업을 주관하는 평신도국은 교육과 복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는 2회씩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를 개설하는 것을 단기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한철·장기기증 운동을 펼치고 자원봉사팀을 발족시키는 등 어려운 이웃을 끌어안을 수 있는 활동을 계획 중이다.

예성 총회는 매년 5월 교단 총회

세를 보이며 지난해 1305곳으로 늘었다.

반면 교인 수는 2007년 19만 9932명에서 2009년 20만 2008명으로 20만 성도를 달성했다. 2010년에는 20만 9374명으로 2007년에 비해 1만명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2011년에는 2007년보다 적은 19만 2543을 기록해 다시 19만 성도로 내려앉았다.

성도 수는 줄었지만 예성 측은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의 교인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감소라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수가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항목이다.

예성 관계자는 “성도의 수는 다소 감소세에 있지만, 교회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교회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오히려 각 교회가 그만큼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니즈(필요)를 이전보다 잘 채워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기총, “이단 결정 해제 자유롭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앞으로 회원교단들의 결정과 관계없이 이단 규정이나 이단 해제를 자유롭게 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4일 실행위원회를 열어

특정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이단을 해제하는 일을 한기총 회원교단의 입장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이는 현재 예정합동총회 등으로

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다락방 전도운동’이 회원교단인 예정개혁총회 교단에 흡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칫 합동교단의 결정과는 별개로 이단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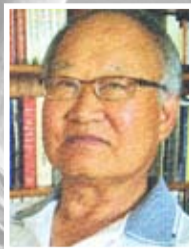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기독교문학소설

(용)이라는 다른 이야기 (16)



정중해 박사 (문학인)

“김 장로님, 난 좀체 예정론이 믿어지지 않아요. 911 테러 때 이전여 명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무너진 건물 조각 밑에 깔려 죽고, 불에 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

지 않고 과로하다가 그리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평소엔 자기 몸을 잘 돌봐야 하고, 병이 나면 의사에게 가야 되고, 부자가 되려면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죠.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전에 심장병으로 죽을 뻔 한 것은 내가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고 몸 관리를 잘못한 탓입니다.”

무영이가 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직업이 의사인 김 장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몸에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몸 관리를 잘못한 본인의 탓도 있겠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허 선생님, 너무 그렇게 자학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김 장로의 코멘트에 무영이도 수긍을 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다시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요 장로님. 의사 선생님 앞에서 함부로 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부모의 유전이나 타인의 잘못으로도 병이 날수도 있겠지요. 불교에서는 욕심과 분노와 함께 무지도 삼악(三惡) 중에 하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기독교는 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해놓고 인간의 무지가 나쁘다는 말은 별로 하지 않는데, 그렇습니까? 사실 무지가 인간에게 불행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무지는 도덕적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수년 전 이태리의 폼페이에 가봤더니, 이 천년 전 그때 사람들이 납으로 만든 물파이프 시설을 사용한 흔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첫째로 벌써 그때부터 납을 썼다는 사실이 놀랍고, 둘째로 납이 인체에 해로운지도 모르고 수도관으로 사용한 사실이 놀랍고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원자탄의 원인이 우리들을 발견한 퀴리 부인도 방사선이 자기 몸을 해쳐 줄일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방사선으로 유발된 루키미아 병으로 목숨을 잃었으니까, 좀 솔직한 말 같지만 이것도 무지에 의한 피해가 아닐까요? 아이고 이리다간 밤을 세우겠네! 저 혼자만 떠들어 죄송해요. 이제 그만 합시다.”

모두들 무영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는 눈치는 아니더라도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있었다. 저녁을 대접하고 다과상에서 환담을 나눌 기회를 마련해준 김 장로는 끝까지 주빈인 무영을 깎듯이 예우했다.

“오늘 저녁의 제 일부 순서 만찬은 별로 차린 것이 없어 죄라했지만, 제 이부 순서인 허 선생님의 특강은 훌륭했습니다.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신학 강의를 해주셔서 허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박수칠까요?”

김 장로의 제의에 모두들 일제히 손뼉을 쳤다. 그날 저녁 무영은 소위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요, 교회의 중진 멤버들이 그들에게 그동안 자기 속으로 씩씩하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문란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속이 후련했다. 그럴 것이 그동안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무영은 자기를 전통적인 독실한 신자로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다.

▲이메일: chonhae@hotmail.com (다음호에 계속)

신로 편지

이집트

이집트의 시위 사태와 하나님의 섭리

이집트에 또 한번의 혁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파라오 시대 이후 최대의 민주적 혁명이 일어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한번의 파바람이 불어올 조짐이 보입니다. 현 무르시 대통령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헌법적 포고를 발표한 이후 그를 반대하는 시민 세력들이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고, 지난 목요일(6일)은 그들이 무르시를 지지하는 세력과 충돌을 일으켜 6명이 사망하고 400-500명이 부상하는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시위는 어제 오늘도 계속되었습니다. 어제는 무슬림형제단 본부 건물과 지부 건물 3곳 이상



이 시위대들에 의해 방화되었습니다. 오늘 무슬림형제단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주의자들은 시위대들의 충돌로 인해 사망한 자신들 단원들의 장례식을 치르며 결사항전을 외쳤습니다.

지난 혁명이 부패한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민주화 혁명이었다면, 이번의 충돌은 자유진영과 이슬람주의자들의 충돌입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국가의 권력(경찰력과 군부)이 자신들 손에 있어 공권력 행사 차원에서 자유진영을 쉽게 억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진영은 골리앗에 대항하는 다윗처럼 무기 없이 맨손으로 대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말 무르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는데, 벌써 일반 국민들은 그에게 소망이 없음을 느끼고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의 무능과 독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을 국민들이 보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무르시 대통령과 자유진영의 지도자들이 대화를 시도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양진영의 감정적 상처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가 되어 있어 양진영이 수용할만한 타협안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이 안되면 양진영이 계속해서 충돌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내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진영의 사람들은 힘은 없지만 끝까지 항전하려고 할 테고, 이슬람주의자들은 지하드 항전을 하듯이 맹렬한 싸움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집트가 이런 일련의 사태를 거치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희생과 죽음의 대가가 주어지겠지만 그로

인해 얻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반 국민들이 이슬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정권이 이 나라에 들어서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이슬람의 사리아 통치가 얼마나 반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비인간적인지를 일반 국민들이 보고 느끼게 하고자 하십니다. 국민들은 6개월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슬람주의자들이 통치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벌써부터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이 중동 땅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어 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앞으로 자유진영의 사람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 1. 이슬람주의자들은 국가를 이슬람 종교가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2. 이슬람주의자들은 정치적인 식견이나 경험이 없습니다.
3. 이슬람주의자들은 국민전체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지하는 소수

의 무슬림형제단과 살라피 주의자들만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4. 이슬람주의자들은 벌써 사회 곳곳에 자신들의 사람을 심어놓았는데 이것의 폐해가 큼니다. 공영 방송, 공영 언론은 완전히 무슬림 형제단 소속의 사람들이 이끌고 있어 완전한 어용 방송, 어용 언론이 되었습니다.

5. 민주화 혁명 이후 어부지리로 그들이 집권을 하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이전의 독재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6. 자유진영과 기독교인들이 생활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유진영이 정국을 주도해야 합니다.

기도제목

△헌재 헌법발의안에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국민투표를 공표하였는데, 이 헌법은 일방적인 이슬람주의 색채의 헌법입니다. 헌법제정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민주적인 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무르시 대통령이 무슬림 형제단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가 일반 국민을 생각한다면 진작 양보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양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이 발표한 헌법적 포고를 철회하고, 국민투표도 연기할 수 있도록.

△자유진영과 이슬람주의자들이 크게 충돌하지 않고 정국의 주도권이 자유진영에 넘어올 수 있도록.

(이슬람네트워크)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Tax 세일가격 \$150.00+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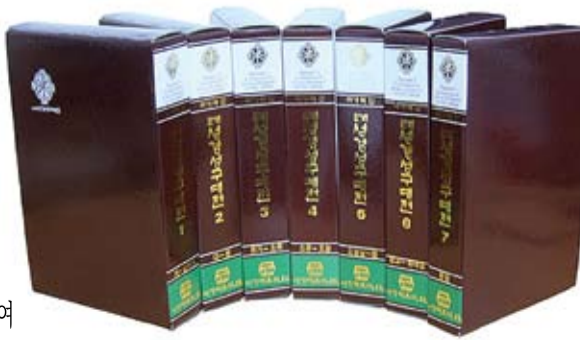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이끼완벽 성경 성구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 1권:가~납
2권:다~뫼
3권:뫼가~소위
4권:소위~오늘
5권:오늘날~종
6권:종교~히트
7권:편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를 이에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2013 미주용 다이어리 신청하세요

다이어리 커버에 교회이름 인쇄, 수첩 안에는 필요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첩커버에 100부이상은 무료로 인쇄해 드립니다(단 10월 31일까지 주문에 한함). 50부 이상 100부 미만은 인쇄비 권당 50센트씩 추가됩니다.

미주판 2013 Immanuel
다양하고 실용성 있는 내용과 세련된 디자인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큐티를 결합
임마누엘 미주판 2013다이어리!
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

2013 Agape Partner Diary
미주판 고급스런 표지와 세련된 디자인,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된 미주전용 Contents!
교사용, 구역장용, 성가대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Gift 아이템입니다.
1-50권은 \$650
51-99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

2013 하이움 다이어리
30년 동안 목회자, 구역장, 교사들의 천구한 사역 도우미!
미주생활 안내가 기재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1-5-권은 \$6,25
51-99 권은 \$5,75
100권 이상은 \$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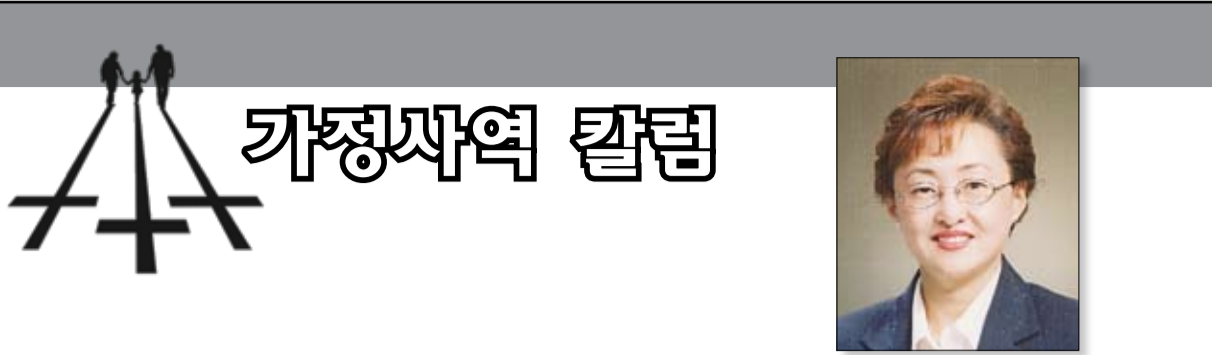
미주판 2013 Qurman Christian Diary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
1-50 권은 \$5,50
51-99 권은 \$5,00
100권 이상은 \$4,50

미주판 2013 Qumran Christian Diary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
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013
2013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이어리
Experiencing GOD diary!
목회자, 제직, 교사, 성가대, 구역장의 사역필수품!
1-50 권은 \$6,95
51-99 권은 \$6,55
100권 이상은 \$6,00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 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조이기독백화점 |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가정사역 칼럼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의미있는 성탄 가족모임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대형 쇼펄뿐 아니라 가정마다 예쁘게 집 주위를 작은 불빛들로 장식한 집들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해의 마지막에 친척들께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거나 특별한 파티나 콘서트, 프로젝트 마감 등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시즌에는 멀리 떠났던 가족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형제자매들이 다시 만나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과 모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의 관계에 따라 커다란 기쁨, 또는 절그러움과 두려움으로 가족방문을 맞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명절에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성탄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봅니다.

1.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완벽한 가족'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감사를 빼앗아가는 도

를 기록하고 나누어 보는 것도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4.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우리가 낙심하거나 상한 마음으로 있을 때도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지만 이제는 그분에게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혹시 절그러움 관계에 있었던 분들이 계시더라도 먼저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당신이 받고 알게 된 사랑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다가가는 방법은 마음을 담은 엽서 한 장, 정성껏 준비한 카드 한 장, 혹은 예쁜 화면과 함께 이메일 한 통으로도 가능합니다. 때론 환한 미소와 따뜻한 손의 온기만으로도 맑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랑을 전달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미안해", 혹은 "사랑해"라는 한 두 마디 말로도 가능합니다. 혹시 그러면 표현들을 하기에 너무나 서먹한 관계라면 기도하며 마음에 사랑을 가득 담고 "작은 선물"을 나누는 것도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때 성탄의 진정한

'완벽한가족' 환상 버리고 어려운 일은 뒤로 미뤄 놀이준비, 가족사랑 표현, 이웃섬기는 전통도 시도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비현실적인 기대나 환상을 가질수록 주어진 현실 상황에 대해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가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실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다른 가족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도록 하십시오.

2. 흥미로운 것을 계획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윷놀이나 스무 고개)이나, 성경(년센스)퀴즈,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함께 가족내력에 관한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자라셨고, 결혼하시게 된 내력, 삶 가운데 가장 즐거웠던 일, 힘들었거나 슬펐던 일,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등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록을 드려보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족사진을 찍어 해마다 변화되는 가족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입니다.

3. 가족들의 어려운 문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십시오.

성탄은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모여 한 해 동안 기쁘고 감사하며 축하할 일들에 대해 나누고 가능하다면 새해의 기도제목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빈종이나 노트를 준비하여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들(20가지)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평화를 원하시고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5.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가족의 전통'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들떠있고 떠들썩한 성탄의 분위기 속에 도리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 홀로 객지에서 성탄을 맞은 나그네, 이혼이나 사별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 선교지에서 분투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양노병원에 홀로 누워 가족들의 방문을 기다리는 분과 홀로 사는 노인, 양노병원을 방문한다든지, 홀로 힘겹게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 가정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모임에 초대하여 확대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나눔을 담은 선물을 보낼 수도 있고,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보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찢어지고 상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탄의 빛으로 다가와 치유와 더불어 사랑을 환히 펼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성탄절엔 외로워하는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실현되어 이 세상 가득 사랑이 넘쳐흐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탐욕과 이기심(막15:23-32)

24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군병들이 한 일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고통으로 신음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자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사형수 옷을 나눠 갖는 것이 당시 관례였으나 그들의 이런 행위는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사22:18). 그러나 남이야 어떤 상태에 있던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군

병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극심한 고통으로 주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도 아무 상관없이 있다는 것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엡5:3).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의 독소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화 찢어진 휘장(막15:33-47)

38절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일어난 한 사건이 나옵니다. 곧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돌이 된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문을 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이 이 문을 열어두심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문

은 모든 사람을 위해 넓게 열렸으므로 어느 종족,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지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천하에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며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수 믿음의 사람(막16:1-8)

3절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지요?"하며 열려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일에 헌신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음에도 그들은 무덤 문 돌을 굴러줄 것을 걱정했던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이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뿐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 막달라 마리아(막16:9-14)

9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이 나옵니다. 그녀는 전에 일곱 귀신이 들렸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녀는 이후에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맨 먼저 그녀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그녀의 이러한 헌신적인 사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일에 어느 정도 헌신적인

지 오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살펴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보상의 법칙인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자 연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법칙을 어긴 일이 없습니 다. 하나님도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봉사에 대해 분명히 보상을 주십니다.

금 표적(막16:1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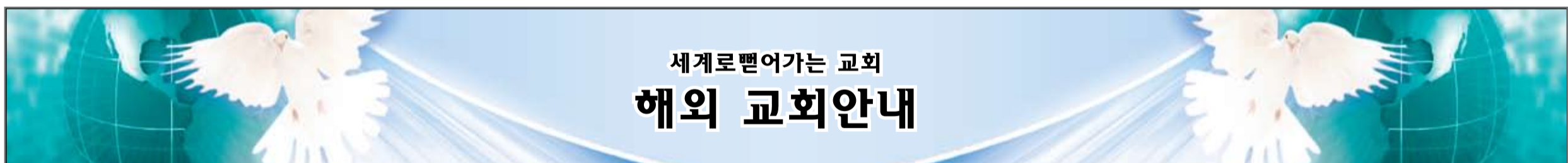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한 것과 그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이 따른 사실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승천 후 제자들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신앙부흥이 일어났으며 복음으로 세계역사가 바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가진 탁월한 리더십이나 특별한 영적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으므로 가능한 일이었습

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주가 함께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불었든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오니"(행8:7). 베드로를 비롯해 바울과 바나바 등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서 표적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힘써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토 사실(눅1:1-4)

1, 2절을 보면 누가는 기독교의 진리가 '사실'(1절)이며, 이 사실을 글로 전하려는 시도가 많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꾸며낸 허구나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실만 해도 몇 백 명이 목격했던 사실이라고 바울 사도는 증언합니다(고전15:4-6). 또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이 공교회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업을 친히 본자라"(벧후1:6)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가 이렇게 사실이기에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진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영생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장래의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18-1, (612-824)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492-4900, Fax. (0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독성동 340-1(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 (82)31-984-2939,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수지구 북동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성경학교: 오후 9:00 Tel. (062)25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교동역사 북구 윤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성경학교: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3-3676(이탈리아) VIA DEI QUINTILI 32-39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침례)를 위한 현대예배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3동 622-3 (158-053)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침례)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4, Fax.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북동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사백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36-896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호
수령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7: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9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2-568-0191, Fax. (82)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삼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82)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말-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5:00(말-토) Tel. (82)2-842-1968, 사백(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마포구 노고단동 49-45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동 415 www.yan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자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성경학교: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결일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2009, Fax. (043)210-104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5-8114 361-833 충북 영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5-8114 361-833 충북 영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아주사대학교 신학대학원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2012년 아주사의 밤

살롬!!!

2012 아주사의 밤이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아주사의밤은 재학생 후배들의 장학기금 마련행사로 모이게 됩니다. 동문여러분 모두 오셔서 2012 연말 뜻깊은 시간 나누길 바랍니다. 그럼 아주사의 밤에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 일동

세미나

주제 "목사가 가져야 할 미래목회의 비전"

강사: 한기형 목사

(나성동산교회 담임, 미기총 증경총회장, 전 기감 미주연회 감독)



강사 : 한기형 목사

음악회

소프라노 김우영(연대음대 성악과 졸, 아주사음대대학원 성악과 연주자과정수료)

소프라노 어유경(장신대 성악과 졸, 아주사음대대학원 성악과 졸)

테너 소병헌(USC 음대대학원 성악과 졸, 아주사신학대학원 M.Div.)

테너 오위영(아주사신학대학원 M.Div., LAKMA, LACS, 극동성가단 단원)

피아노반주 Henna Yi (아주사음대 피아노과 교수)

경배와 찬양

GODIS Worship Band

- 장소: APU East Campus UTCC Hall (901 E. Alostia Ave., Azusa, CA 91702)
- 일시: 12월17일(월) 오후6시
- 문의: 회장 818-331-5478, 총무 213-618-0575

2012-2013 아주사퍼시픽대 한인동문회 임원단

- 회 장: 최장식 목사
- 수석부회장: 광경동 목사
- 부회장(남): 고동화 목사, 김종진 목사, 김창군 목사, 박용서 목사, 박찬일 목사, 송광철 목사, 연제선 목사, 오위영 목사, 이근환 목사, 이학종 목사, 차승완 목사, 최선영 목사
- 부회장(여): 박운송 목사, 정인순 목사, 최영수 전도사
- 총 무: 김규현 목사
- 협 동 총무: 고성원 목사, 김진산 목사, 김형균 목사, 박준호 전도사, 이요한 전도사, 형준화 목사
- 서 기: 한희성 전도사
- 부 서 기: 안효민 목사
- 회 계: 스텔라민 전도사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3:17-19)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
APU Alumni Korean Chapter

후원기업: A-1 Auto Center 바디샵, America 부동산 (박경민·복자), 기독교서적센터 (강병찬), 뉴스타트로피, 뉴초이스운송, 디스커버리종합보험 (박현), 매트빛꽃집, 새한여행사, 엘리트치과, 오병이어선교회(이준), 이경희변호사, 전명재회계사, 프라미스어린이학교, 한미자동차(제이슨김), 헬로우피자, 76 Gas, 후원언론: 크리스천헤럴드, 미주크리스천신문, CTS-TV, 한국일보 종교부

Christmas Greeting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아심을 입은 사람들중에 평화로다 아니라(눅 2:14)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Tel.(323)939-7323
Fax.(323)939-1656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헌성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Tel. (213)413-1600
Fax.(213)413-1911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714)826-6245
Fax.(714)826-6187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Tel. (718)482-7788
Cell.(917)349-5631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el. (213)215-8523
Fax.(213)977-1183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목사: 박용덕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el. (714)401-9874
Fax.(562)947-1760

남가주왕성교회

담임목사 : 안경찬

2500 Wilshire Blvd #700
L.A., CA 90057

Tel.(213)819-881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성섭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Tel.(704)-841-0821
Fax.(704)841-1625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Tel. (718)464-2295
Fax.(718)762-4693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40-05 Ski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718)461-7835
Cell.(718)938-1777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 김재열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42-15 166St,
Flushing, NY 11358

Tel. (718)762-5756, 2525
Fax.(718)961-3111

뉴저지베다니교회

담임목사: 장동찬

491 Alps Rd,
Wayne, NJ 07470

웨이:(973)694-3880
포트라:(973)694-3880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Tel. (702)648-7994
Fax. (702)648-7057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Tel. (213)380-9078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2202
Fax(213)381-2535

벽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벤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벤엘장로교회

담임목사 : 변영익

857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7-1733
Fax.(323)931-2836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Tel.(626)339-6177
Fax.(626)967-3078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501 S. Idaho St. #200
La Habra CA 90631

Tel. (562)690-9800
Fax.(562)690-8044

샤롯데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Tel.(704)529-0900
Fax.(704)529-0998

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 김영빈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el. (818)363-5887
Fax.(818)368-9883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

시애틀평양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635-A Palolo Ave.,
Hon., HI 96816

Tel. (808)735-0011
Fax. (808)732-5550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el. (818)249-2871
Fax.(818)249-051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Tel. (915)755-1490
Fax.(915)751-4365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907)344-3182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301 S. Kingsley Dr.2F-B
L.A., CA 90020

Tel. (213)245-4090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188-12 72Ave
Fresh Meadows, NY 11366

Tel. (718)310-7061
Tel. (718)310-7062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Tel. (732)310-0022
Fax. (732)537-9742

창대교회

담임목사 : 이춘준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el. (909)388-2940
Fax.(909)338-2941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939-8599
Fax.(718)321-880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규성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안디옥교회

담임목사 : 호성기

One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Tel. (610)828-6760
Fax.(610)260-1343

풍성한교회

담임목사: 박효우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8

Tel. (213)381-9490
Fax.(213)385-9191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선만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Tel.(860)643-4738
Fax.(860)647-0565

한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운영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 (213)739-8824
Fax : (213)739-8821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마이클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Tel. (718)353-3159
Fax.(718)353-31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